

행위자 - 네트워크 이론과 북한 연구* 방법론적 성찰과 가능성

홍 민(동국대학교)

행위자 - 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은 1980년대 초반 등장 이후 최근까지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 사회과학, 인문학, 지리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학술적 이론이다. 행위자 - 네트워크 이론은 사물과 인간, 자연과 사회의 이분법적 존재론으로 구축된 근대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인간과 비인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인식론적 · 방법론적 논쟁과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 논문은 행위자 - 네트워크 이론이 사회과학과 북한 연구에 주는 인식론적 성찰과 방법론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첫째, 행위자 - 네트워크 이론이 제시하는 주요 문제의식과 개념을 소개하고, 그것이 사회과학적 인식과 방법론에서 갖는 의미를 고찰한다. 둘째, 기존 북한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행위자 - 네트워크 이론이 북한 연구에 주는 방법론적 함의를 고민해본다. 셋째, 행위자 - 네트워크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북한 연구의 주제와 향후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본다. 결론적으로, 북한 연구에 행위자 - 네트워크 이론의 적용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NRF-2010-330-B00023).

이 논문은 2012년 11월 6일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개소기념으로 개최된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북한의 미래”라는 주제의 학술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하여 게재한 것이다. 토론을 통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이정철 선생님과 익명의 심사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은 지금까지 북한 연구가 보여왔던 방법론적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대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분단체제와 냉전의 관성으로 인한 인식론적 한계를 성찰하는 계기를 줄 것으로 본다.

주제어: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북한 연구, 방법론, 사회적인 것, 블랙박스, 집합체, 번역, 권력, 사회-기술적 네트워크, 아장스망, 이상블라주, 장치, 행위성

1. 들어가는 말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은 1980년대 초반 등장 이후 최근 사회과학, 인문학, 과학기술학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학술적 논의이다. ANT를 언급하거나 활용하는 책과 논문은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과학철학 및 과학기술학, 사회학, 인류학, 정치학, 경영학, 조직이론, 리더십 연구, 미디어 연구, 시장 연구, 금융이론, 정보기술론, 지리학 및 도시 연구, 위험 연구, 여성 연구, 환경생태학, 예술이론, 의학, 심리학, 관광 연구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전공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ANT가 수용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세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 ANT가 기존 시각과 갖는 차별성과 독창성 때문일 것이다. 이른바 현대의 우리는 위험을 양산하는 ‘위험사회’,²⁾ 일상을 위협하는 ‘유동하는 공포’³⁾ 속에 놓

1) 그럼에도 ANT는 국내에서는 이론적 논의와 사례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ANT는 국내 몇몇 과학철학자와 사회학자를 통해 이론이 소개되어왔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할 만큼 관련 저서와 논문이 활발하게 소개되거나 사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여 있다고 진단을 받은 한다. 이 위험과 공포의 근저를 이루는 실체는 무엇이며 그 실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견이 제시되어왔지만, 아직도 불확실성의 안개는 여전하다. 어떻게 보면 위험과 공포를 낳은 원흉으로 지목되는 ‘근대’, 그 근대주의의 시선으로 위험과 공포의 원인을 보려고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모른다. ANT는 바로 이 근대의 인식 세계에 대한 위상학적(topological) 검토를 수행하며 세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할 것을 주문한다.

그것은 세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 ‘실재(reality)’란 무엇인가, ‘사회’는 무엇이고 ‘권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되물음 또는 성찰적 재구성일 듯하다. 고정불변의 본질을 갖는 실재란 있는 것인가? 세계는 진정 인간만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사회’라는 개념은 과연 현실을 보여주는 실재일 수 있는가? 우리가 ‘사회적인 것(the social)’으로 호명해왔던 것들 — 사회구조, 사회질서, 사회규범, 사회체계, 사회적 실천 등등 — 은 과연 세계의 실재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사유의 틀을 제공해왔는가? 이 세계는 과연 인간 의지와 실천, 오만과 착오만의 결과인 것인가? 소유와 억압, 계급으로 환원되는 권력에 대한 설명은 과연 적절한 것일까?

-
- 2) 벡(Ulrich Beck)은 근대화의 발전 과정에서 부는 체계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위험은 부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우연적 난관에서 체계적으로 생산되는 정상적 개연성으로 변모하였으며, 산업사회는 구조적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아슬아슬한 ‘위험사회’라고 진단한 바 있다. 울리히 벡(Ulrich Beck),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홍성태 옮김(서울: 새물결, 2006).
 - 3) 바우만(Zygmunt Bauman)은 자본이나 기술, 폭력이나 마약 등이 우리가 세운 경계를 자꾸만 넘나들고 어느새 우리가 안주하던 곳을 생경한 곳으로 바꿔버리는 유동적 근대의 현실을 지적한다. 그는 이처럼 최고조에 달한 기술문명의 이면에 숨어 있는 불확정성과 통제 불능성, 거기서 느끼는 공포를 ‘유동적 공포’라고 해석한다. 또한 공포의 끝에 몰린 사람이 스스로 공포가 됨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공포를 외면하던 사람들에게 공포로 다가가고 있다고 본다.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 『유동하는 공포』, 함규진 옮김(서울: 산책자, 2009), 213 ~ 258쪽.

세계 인식의 근본적 토대를 의심한다는 점에서 ANT는 단순한 하나의 이론적 주장을 넘어서는 일종의 ‘사고방식’ 또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핵심은 인간 이외의 비인간을 포함하는 행위자의 발상, 그리고 사회를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집합체(collective)로 보는 발상이 다양한 분과학문에서 논쟁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ANT는 단순히 자기 완결적 이론 또는 분석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자기 완결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과 분석 도구를 번역(translation)을 행하는 하나의 ‘블랙박스(black box)’로 보고 오히려 그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 세계를 특정하게 구분 짓고 경계 짓고 격자화해서 보도록 하는 모든 것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광범위한 문제의식만큼 ANT를 활용하는 연구자들의 방법도 다양화하고 있다. 첫째, 세계를 인식하는 근본적인 성찰과 재구성의 논의로 받아들이는 경우이다. 가령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인간만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자연(비인간)을 포함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존의 인간을 위한 환경과 생태라는 발상을 넘어서는 세계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자연의 정치(politics of nature)’, ‘사물의 정치(politics of things, dingpolitik)’에 대한 관심이다.⁴⁾ 둘째, ANT의 주요 발상을 방법론적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ANT가 사용하는 ‘번역’ 과정의 도식이나 네트워크 기술(description) 또는 네트워크 지도 그리기(mapping)의 방법을 사례연구에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식이다. 셋째, 일반적인 사고방식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경우이다. 가령 ANT의 주요 테제(these)라고 할

4) Bruno Latour, *Politics of Nature: How to Bring the Sciences into Democracy*(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pp. 1~8.

수 있는 ‘비인간’도 행위자로 간주하여 인간 중심적 사회 인식에서 벗어나 바라보려는 시도를 통해 다양한 분과학문의 기존 논의를 재검토하고 재성찰하는 데 활용하는 경우이다.⁵⁾

그런데 중요한 것은 ANT는 현상을 자기 완결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정교한 ‘이론’ 또는 ‘방법론적 도구’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⁶⁾ 오히려 단일하고 완결된 이론을 지양한다.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가 주장하듯이 ANT는 순전히 “사용자의 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⁷⁾ ANT 주요 주창자들(Michel Callon, Bruno Latour, John Law)의 관점과 그들 ‘말’의 세공에 이 이론의 운명이 달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용자 손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가 성찰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정교한 도식과 모델을 제시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를 둘러싼 인간과 비인간의 네트워크 궤적을 좇고 기술하는 것 자체를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제시한다.

이 글은 이러한 ANT의 문제의식과 주장이 북한 연구에 주는 인식론적·방법론적 함의를 고민하는 데 있다. 따라서 ANT를 통해 거창하거나 새로운 북한 연구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글은 아니다. 그보다는 ANT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이 사회과학 전반에 주는 성찰은 무엇인가

5)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이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은 단지 과학이나 기술에 대한 성찰적 문제 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social)’, ‘사회(society)’, ‘행위성(agency)’ 등과 같은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을 재구성하는 시도와 결부되어 있다. 이외의 여러 분과학문에서도 기존에 당연히 전제되거나 의문시되지 않던 개념에 대한 성찰이 ANT를 통해 이루어는 경우가 많다.

6) John Law, “Actor Network Theory and Material Semiotics,” version of 25th April 2007, p. 2. <http://www.heterogeneities.net/publications/Law2007ANTandMaterialSemiotics.pdf>.

7) Bruno Latour, *Science in Action: How to follow scientists and engineers through society* (Cambridge-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p. 259.

에 대한 고민을 통해 북한 연구에 주는 방법론적 함의를 시론적으로 고민해보는 것에 가깝다. 이를 위해 우선 ANT의 지적 발상과 주요 문제의식에 대한 소개를 통해 ANT가 사회과학적 인식과 방법에서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 둘째, 그런 연속선상에서 ANT가 북한 연구에 주는 방법론적 함의를 고민해보며, 셋째, ANT를 통해 새로운 인식과 재구성이 가능한 북한 연구의 주제들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2. ANT의 지적 발상과 문제의식

ANT는 주로 1980년대 초반 과학기술사나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이하 STS)⁸⁾을 연구하던 브루노 라투르, 미셸 칼롱(Michel Callon), 존 로(John Law) 등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주로 가브리엘 타르드(Jean Gabriel Tarde)의 사회학,⁹⁾ 미셸 세르(Michel Serres)의 과학철학¹⁰⁾과 그레마스(Algirdas-Julien Greimas)의 기호학,¹¹⁾

8) 과학기술학(STS)은 과학기술을 철학적·역사학적·사회학적·인류학적 접근을 통해 연구하는 학제적 분야이다. 과학기술학에 대해서는 김환석, 『과학사회학의 쟁점들』(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6), 62~70쪽.

9) 라투르는 타르드의 사회학을 ANT와 관련된 중요한 지적 유산으로 본다. 미리 사회적인 것(the social)을 전제하고 행위자들을 그 속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을 그것에 전적으로 포섭되지 않는 의미로서 받아들이고 그들 행위에 대한 추적을 통해 사회적인 것을 재정립하도록 요청한다. Bruno Latour, "Gabriel Tarde and the End of the Social," Patrick Joyce(ed.), *The Social in Question: New Bearings in History and the Social Science*(London: Routledge, 2002), pp. 117~132. 타르드의 미시사회학을 새롭게 발굴한 들뢰즈의 연구로는, 질 들뢰즈(Gilles Deleuze), 『차이와 반복』, 김상환 옮김(서울: 민음사, 2004), pp. 182~183; 들뢰즈·가타리(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천개의 고원』, 김재인 옮김(서울: 새물결, 2001), 416~417쪽. 타르드의 대표작으로는, 가브리엘 타르드(Jean Gabriel Tarde), 『모방의 법칙』, 이상률 옮김(서울: 문예출판사, 2012).

화이트헤드(Alfred Whitehead)의 과정철학,¹²⁾ 토머스 휴즈(Thomas P. Hughes)의 ‘기술시스템’ 이론,¹³⁾ 아날학파의 유물론적 역사관 등에 강하게 영감을 받아 독특한 모델과 방법론을 제시한다.

ANT에 의하면 세상은 고유의 고정된 본질을 가진 실재들로 구성된 세계가 아니라고 본다. 세계는 고정되지 않은 채 수많은 ‘관계’를

- 10) 미셸 세르의 과학철학에 대한 세르와 브루노 라투르의 대답은 세르·라투르(Michel Serres and Bruno Latour), 『해명』, 박동찬 옮김(서울: 솔, 1994) 참조. 미셸 세르의 철학에 대해서는, 미셸 세르(Michel Serres), 『천사들의 전설: 현대의 신화』, 이규현 옮김(서울: 그린비, 2008); 미셸 세르(Michel Serres), 『헤르메스』, 이규현 옮김(서울: 민음사, 2009); 이지훈, “미셸 세르의 인식론: 공존의 모색,” 『현대철학의 모험』(서울: 도서출판 길, 2007), 297~317쪽.
- 11) 그레마스의 기호학에 대해서는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 그레마스의 기호학 및 일반 의미론의 연구』(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참조. ANT 주요 개념의 정립에서 물질기호학과 갖는 관계에 대해서는, John Law, “Actor Network Theory and Material Semiotics,” version of 25th April 2007, pp. 2~17. <http://www.heterogeneities.net/publications/Law2007ANTandMaterialSemiotics.pdf>.
- 12) 화이트헤드는 그의 철학을 ‘유기체 철학’이라 부른다. 그는 인식 주체와 인식 객체의 구별, 실재적인 것과 현상적인 것의 구별, 그리고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구별 등을 거부한다. 화이트헤드에 의하면 파악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현실적 존재는 이 세상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파악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현실적 존재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순수하게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사물과 추상적인 것들까지도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Alfred Whitehead), 『과정과 실재: 유기체적 세계관의 구상』, 오영환 옮김(서울: 민음사, 2003); 문창욱, “변화의 철학, 화이트헤드를 위한 변명,” 『현대철학의 모험』(서울: 도서출판 길, 2007), 79~99쪽.
- 13) 휴즈가 말하는 기술시스템은 물리적 인공물뿐만 아니라 조직, 과학 기반, 법적 장치, 자연자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기술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공존한다. 휴즈의 기술과 문화에 대한 연구로는, Thoms P. Hughes, *American Genesis: A Century of Invention and Technological Enthusiasm, 1870~1970*(New York: Viking Penguin, 1989); 토머스 휴즈(Thomas P. Hughes), 『테크놀로지, 창조와 욕망의 역사』, 김정미 옮김(서울: 플래닛미디어, 2008); 송성수, “에디슨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술시스템론,” 『욕망하는 테크놀로지』(서울: 동아시아, 2009), 121~131쪽.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유동하는 다중적 실재들의 세계이다. 그런데 여기서 ‘관계’는 인간들만의 관계가 아니다. 수많은 인간과 비인간의 네트워크이다. 이 네트워크 속에서 인간은 수많은 다른 인간-비인간들과 연결되어 있고, 비인간도 술한 인간-비인간들에 연결되어 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비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행위성(agency)이라는 것은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인간과 비인간의 행위성이 합쳐진 결과인 것이다. 결국 사회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집합체(collective)¹⁴⁾인 것이다. 가령 우리의 일상 또는 우리 자신의 행위성은 타인을 비롯해 수많은 비인간(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종이, 책상, 연필, 책, 표지판, 기호, 그래프, 계약서, 시계, 옷, 술, 교통신호 등등)과의 접촉, 비인간이 가진 행위성을 인간의 인지와 행동에 결합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들 비인간은 무생물의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행위성을 갖는 행위자들로 인간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상은 자연/사회(인간), 물질/정신, 비인간/인간 등의 이분법을 통해 이 둘을 분리하여 사회를 마치 인간만으로 이루어진 세계, 그들 인간의 정신만으로 구축된 세계로 믿고 상상하도록 하는 ‘정화(purification)’를 해왔다. 그러나 실제 세계는 인간과 비인간이 결합한 수많은 잡종들 또는 혼성물(hybrids)로 이루어진 세계이다. 권력 역시 ANT는 여러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이 새로운 동맹을 만들

14) ANT의 주장자들은 기존의 ‘공동체(communitiy)’나 ‘사회’라는 말을 대체하기 위한 개념으로 ‘집합체(collective)’라는 말을 쓴다. 기존의 공동체나 사회라는 개념이 대개 인간만의 사회적 관계를 뜻했다면 집합체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모두를 포괄하는 집단, 사회 혹은 공동체의 개념이다. Bruno Latour, “Pragmatogonies: A Mythical Account of How Humans and Nonhumans Swap Properti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37(1994), pp.791~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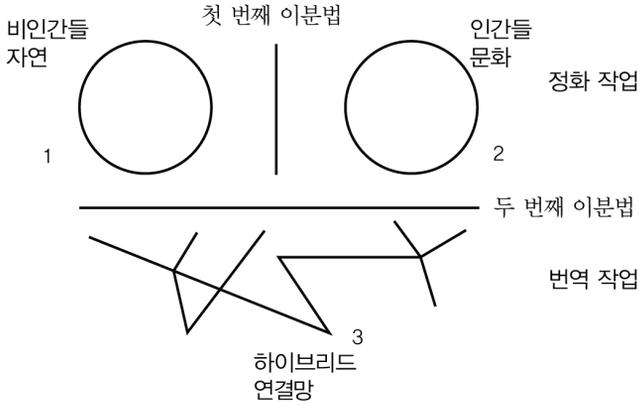
면서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이 네트워크에 다른 행위자를 포섭하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안정화시켜서 더 많은 행위자들이 이에 의존하게끔 하는 과정으로 본다. 한마디로 이를 통해 세상을 ‘번역(translation)’하는 능력, 그 효과가 권력인 것이다. 소유, 계급, 억압은 권력의 효과, 권력의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비인간의 이중적인 행위자-네트워크를 추적하는 것은 어떻게 인간을 비롯한 지식, 제도, 사물, 기술, 과학 등 여러 이질적 요소들이 결합하고 탄생하고 소멸하는지, 또 우리의 생활에 스며들고 드러나는지를 이해하게 한다. 다음은 ANT의 주요 문제의식을 주요 개념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1) 세계는 무엇인가: 다중적 실재론

세계가 무엇이고 실재(reality)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왜 북한 연구에 필요할까? 사회를 보는 시각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과학 전반에서 상식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전제와 개념들, 접근방법에 대한 성찰이다. 북한 연구도 이런 사회과학의 개념적 자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북한 연구에서 상식적으로, 공공연하게 활용되는 전제와 개념에 대한 성찰에 필요한 질문인 것이다. 실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곧 세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더 좁혀서 사회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이다. 그래서 실재에 대한 논의 역사는 근대를 가로지르는 사상적 궤적과 함께한다.

우선 합리주의자 데카르트(René Descartes)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실재에 대한 절대적 확실성을 추구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마지막까지 남는, ‘생각하는 자기 자신(정신/이성)’에 도달했

<그림 1> 근대인의 이분법: 정확화와 번역의 작용¹⁵⁾



다. 그는 정신을 외부 세계로부터 분리함은 물론 몸으로부터도 분리했다. 바로 주체/객체의 분리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분리된 정신이 어떻게 외부 세계(자연)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느냐에 천착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라투르는 근대인들이 “왼쪽에는 사물에 관한 지식을 놓고, 오른쪽에는 권력과 인간의 정치를 놓았다”¹⁶⁾고 본다. 즉 첫 번째 이분법(first dichotomy)은 세계를 자연(비인간)과 문화(인간)로 구분하여 보는 것이다(정확화작업). 그러나 두 번째 이분법(second dichotomy)에서 보듯 세계의 실재는 인간과 비인간의 끊임없는 결합에 의한 잡종 또는 혼성물(hybrids)로 이루어져 있다((번역 작업), <그림 1> 참조). 순수한 ‘자연’과 순수한 ‘사회’라는 것은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자연’ 개념이 자연과학의 발명품이듯이 ‘사회’ 개념도 사회과학의 발

15)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홍철기 옮김(서울: 갈무리, 2009), 43쪽.

16) 위의 책.

명품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결합한 수많은 이질적 연결망이다.¹⁷⁾

둘째, 경험주의자들은 지식이 외부 세계에 대한 인간의 감각을 통해 산출된다고 주장하며, 이 점에서 과학의 기초는 실험에 있다고 보았다. 정신/세계, 주체/객체의 구분은 유지한 채,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수많은 경험적 자극을 정신이 인식하도록 훈련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즉 세계는 그 자체로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험적 자극들의 집합으로 축소되어버린 것이다. 합리주의가 인간의 지식이 이성의 작용을 통해 정신에 의해 산출되며 진정한 과학의 기초를 수학이라고 본 것과는 대립된다.¹⁸⁾

셋째,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사이의 확실한 지식을 두고 벌어진 논쟁에서 종합적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구성주의’의 선구자인 칸트(Immanuel Kant)이다. 칸트는 지식이 정신 능력과 감각 능력(즉 이성과 감각)의 종합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칸트는 인간정신 외부에 ‘물 자체(things in themselves)’가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인간의 정신만으로 세계 자체를 알 수는 없다고 보았다. 절대적 확실성을 포기한 것이다. 그 대신에 인간이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정신으로 인식된 세계인데, 칸트가 ‘선험적 자아’로 명명한 것 속에 있는 ‘선험적인 보편범주들’을 통해서 인간은 세계에 대한 보편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는 정신이 구성한다는 것이다.¹⁹⁾ 따라서 이제 세계의 중심은 정신이고 외부 세계는 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주변적 위성이 되어버림 셈이다.

17) 김환석, 『과학사회학의 쟁점들』, 121쪽.

18) 위의 책, 100쪽.

19) 위의 책, 102쪽.

넷째, 사회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뒤르켐(Emile Durkheim)의 세계 인식이다. 그는 철학과 심리학에서 지식의 근원으로 오랫동안 주장되어온 정신을 추상적이고 개인주의적이라면서 비판하고, 그 대신에 외부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인간 집단의 문화적 범주와 편견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사고의 범주들은 사회구조와 도덕을 통해 개인에게 부여된다는 사회적 실재론(social realism)을 제시한다.²⁰⁾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또 다른 사회적 범주인 계급적 이해관계가 지식의 기초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뒤르켐 이후 사회학은 정신/자연 및 주체/객체 분리를 극복하고 좀 더 실제 현실에 가까운 지식 형성의 이론을 제공한 것일까? ANT에서는 정신과 세계 사이에 ‘사회’라는 필터를 더 끼워놓은 것뿐이고 단지 정신을 ‘사회’로 대체한 것이라고 본다. 지식의 기초를 이제 ‘보편적 자아’에서 인간 집단의 ‘복수 문화들’로 대체한 것이다. 결국 지식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은 정신/세계, 주체/객체 분리를 사회/자연의 이분법으로 대체했을 뿐이란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세계 인식이다. 그렇다면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근대주의를 극복한 것일까? 이들에게 인간이란 언어라는 인식의 감옥에 갇힌 수인이다. 그들은 인간이 세계에 대해 어떤 절대적 확실성과 보편성을 지닌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본다. 결국 언어와 차이로 구성된 세계, 즉 텍스트(text)로서의 세계만이 남게 된다. 그들 논의에서 정신과 세계의 연결, 그리고 주체와 객체의 연결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ANT는 포스트모더니즘이 근대주의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실망한 근대주의’라고 본다.²¹⁾

20) 위의 책, 103쪽.

21)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164쪽.

ANT는 이 모든 세계 인식이 애초 잘못된 시작이 낳은 결과라고 본다. 정신과 세계는 원래부터 분리되어 있지도 않았고 분리되어 따로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세계는 우리의 몸을 비롯한 수많은 행위자들의 실천으로 매개(mediation)되어 있다. 이 매개적 실천은 인간을 비롯하여 수많은 비인간에 의해 수행된다. 따라서 인간이라는 주체와 비인간이라는 객체를 기준으로 하는 이분법에 의한 세계 인식은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 세계는 인간과 비인간의 매개적 실천 속에서 생성·유지·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ANT의 목표는 바로 현실에서 이런 매개와 실천을 포착하고 지식과 권력을 포함하여 이 세계가 어떻게 이 행위자들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 또는 변화하거나 사라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

정리하면, 우선 ANT는 실재 또는 세계라는 것이 원래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의 실천을 통해 ‘수행됨(performed)’으로써 존재한다고 본다. 즉 이들의 수행에 의해 실재는 구성되고 유지되며 변형되는 것이다. 이 행위자들 사이의 수행 없이 고정된 본질로만 이 세상이 구성될 수 없다고 본다.

둘째, ANT는 실재가 이질적(heterogenous) 요소들로 구성된 집합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우리가 구분해놓은 ‘자연’, ‘사회’, ‘인공물(artifacts)’ 등 모든 실재는 인간-비인간의 결합(association)에 의해 구성된다. 따라서 자연, 사회, 인공물 사이에 근본적이고 선형적인 차이가 원래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차이는 인간이 만든 인식과 구분의 문제일 뿐인 것이다. 다만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결합에 의해 새로운 혼성물이 만들어진 이후의 사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며, 이 또한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다.

셋째, ANT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중 그 어느 것도 다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어떤 행위자의 행위나 존재 이유가 다른 행위자의 행위나 존재로 환원되어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크든 작든,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모든 행위자들은 같은 지위에 있다. 각 행위자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나머지 것들을 증진시키고 그것에 저항할 뿐이다. 따라서 세계는 인간을 비롯한 비인간들 사이의 일련의 협상이고 이들 간에는 ‘힘겨루기(trials of strength)’, 즉 상호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협상 과정을 통한 연합과 상호 속성의 교환, 그리고 네트워크의 강도를 시험하는 과정(trials of strength)만이 있을 뿐이다.²²⁾

넷째, ANT는 실재란 유무 차원이 아닌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보통 우리는 ‘실재(존재 有)’가 아니면 ‘허구(존재 無)’ 두 가지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ANT는 실재란 유무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 행위자들 간의 연결과 저항의 세기에 따라 존재의 정도가 구성된다고 본다. 어떤 것들은 제휴 관계를 늘림으로써 더 강해지며, 어떤 것들은 단절됨에 따라 더 약해지고 더 고립된다.²³⁾ 즉 세상에는 강한 네트워크(stronger network)와 약한 네트워크(weaker network)라는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재는 유와 무라는 이분법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다섯째, ANT는 실재를 하나의 사건 궤적과 생성 과정으로 본다. 실재가 변하지 않는 고정된 ‘무엇’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사건들(events)’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즉 출현하고 성장하고 변형되고 쇠퇴 및 소멸하는 것 등이 있을 뿐이다. 이를 철학에서는 ‘존재로서의 세계’와 대비되는 ‘생성으로서의 세계’, 즉 ‘생성의 철학’

22) Graham Harman, *Prince of Networks: Bruno Latour and Metaphysics*(Melbourne: Re. Press, 2009), p. 13.

23) *Ibid.*, pp. 15~16.

이라고 해왔고, 데카르트와 칸트 등의 근대 철학이 전자라면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베르그송(Henri Bergson),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후자에 해당한다.²⁴⁾

결론적으로 ANT는 실재는 다중적이라고 본다.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은 연결망에 따라 정체성이 변화하고 다중적으로 구성된다.²⁵⁾ 하나의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들과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연결망에 가입하게 된다. 연결에 따른 속성 교환을 통해 여러 개 정체성을 갖게 되며, 실재란 다중적(multiple)·복합적(complex)·부분적(fractional)인 성격을 갖게 된다. 결국 실재란 행위자들의 끊임없는 실천 또는 수행을 통해 구성되는 ‘실천 속의 실재(reality-in-practice)’ 또는 ‘수행되는 실재(reality-enacted)’인 것이다.²⁶⁾

이런 연속선상에서, ANT는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의 속성 또는 정체성이 그 자체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위들과의 관계에서 생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은 서로 대면하는 동시에 자기 쪽으로 가입시키기 위한 ‘힘겨루기’를 하면서 속성을 교환하고 서로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사회-물질적 연결망이 달라져 전혀 다른 행위자들과 대면하면 인간의 정체성도 달라진다.

24) 이정우, 『사건의 철학: 삶, 죽음, 운명』(서울: 그린비, 2011), 13~24쪽.

25) 김환석, “두 문화, 과학기술학, 그리고 관계적 존재론,” 『문화과학』, 통권 제57호(2009), 56쪽.

26) 후기 ANT를 대표하는 학자 중 한 명인 안네마리 몰(Annemarie Mol)은 이를 ‘다중적 실재(multiple realities)’라고 표현한다. Annemarie Mol, *The Body Multiple: Ontology in Medical Practice*(Duke Univ. Press, 2003). “만일 실재가(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되는 것이고 만일 그것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위치 지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또한 ‘다중적’인 것이다. 실재들은 다중적이 된 것이다.” Annemarie Mol, “Ontological politics,” *Actor Network Theory and after*(Oxford: Blackwell Publishing, 1999), p. 75.

이를 해러웨이(Donna Haraway)는 ‘분열된 정체성(fractured identities)’이라고 한 바 있다.²⁷⁾ 즉 실체들의 물질적 성격은 그것들을 둘러싼 관계들의 효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ANT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의 행위성을 인정하고 중요하게 여긴다.

2) ‘사회적인 것’의 재조립: 결합체의 사회학

우리는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사회’라는 명사, ‘사회적’이란 형용사를 결합한 수많은 개념들을 학술적으로 사용한다. ‘사회적 구조’, ‘사회적 질서’, ‘사회적 규범’, ‘사회적 실천’ 등이 있다. 사회는 보통 하나의 집합적 단위 또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진 세계를 의미한다. 의문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지는 개념이고 매끄러운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사회적’인 것의 개념들은 세계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나아가 ‘사회’란 과연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듯 개인을 초월하는 하나의 실재로서 존재하는 것일까?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개념이 사회학 내지 사회과학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은 20세기 초라고 할 수 있다. 뒤르켐은 1895년에 그 유명한 『사회학적 방법의 규칙들』이란 책을 통해 생물학, 심리학, 철학으로부터 구분되는 독자적 학문으로서의 사회학은 과학적인 연구 대상으로서 ‘사회적 사실’을 다룬다고 주장하였다.²⁸⁾ 뒤르켐이 규

27) 다너 해러웨이(Donna Haraway), “사이보그를 위한 선언문: 1980년대에 있어서 과학, 테크놀로지, 그리고 사회주의 페미니즘,” 임옥희 옮김, 『문화과학』, 통권 제8호(1995), 83쪽; Donna Haraway, “Situated Knowledge: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and the Privilege of Partial Perspective,” *Feminist Studies*, Vol. 14, No. 3(1988), p.595.

28) 에밀 뒤르켐(Emile Durkeim), 『사회학적 방법의 규칙들』, 윤병철 옮김(서울:

정했던 독자적 실체로서의 ‘사회적인 것’은 자연과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본 ‘자연적인 것(the natural)’이나 심리학의 대상이라고 본 ‘개인적인 것(the individual 또는 the psychological)’과 구분되는 것으로 호명되었다. 이런 구분은 철저하게 자연/사회 그리고 개인/사회의 이분법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서 뒤르켐이 주장한 ‘사회적인 것’과 그것을 담는 그릇인 ‘사회’는 오로지 인간들이 집합적으로 만들어내는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결국 ‘사회적인 것’은 인간들로만 구성된 독자적인 차원을 이루는 실체가 된 것이다. 여기서 자연 또는 비인간은 사회 현상의 배경을 이루는 제약 요인 또는 외생적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결코 ‘사회적인 것’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는 아닌 것이다. 뒤르켐의 이 정의가 사회학의 주류 패러다임이 되면서 사회학의 내용과 연구 대상으로부터 자연 또는 비인간이 철저하게 배제된다. 오늘날에도 ‘사회적인 것’이란 오직 인간들의 관계, 제도, 구조, 체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이것은 사회학의 인간 중심주의이자 ‘사회적인 것의 사회학(sociology of the social)’을 의미한다.²⁹⁾

새물결, 2001) 참조.

29) 1970년대 중반 이후 과학지식사회학(Sociology of Scientific Knowledge: SSK)과 환경사회학(Environmental Sociology)이 등장하면서 자연과 비인간을 연구 대상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시도는 과학기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환경 문제가 부각되는 시대 상황이 반영된 것이었다. SSK는 토머스 쿤(Thomas Kuhn)의 과학혁명론을 확장, 과학지식 역시 이해관계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연구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환경사회학 역시 생물적·물리적 환경을 전혀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전통적 사회학을 비판하며, 사회와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SSK와 환경사회학은 여전히 자연/사회의 이원적 존재론의 전제 위에 ‘사회적인 것’의 기존 패러다임을 그대로 인정하는 차원에서 연구영역을 확장한 데 그치고 만다. 한편 생태사회학은 사회와 환경이 서로 자율적인 영역들로 취급되는 것을 지양하고 사회의 생태학적 토대를 강조하며, 인간은 자연의 다른 요소

반면 ANT는 이런 이원적 존재론을 거부하고, 인간과 비인간의 행위성을 구분하지 않는 새로운 존재론을 주장한다. 즉 ‘관계적 존재론 (relational ontology)’이다. 이는 모든 실재가 어떤 고정된 본질을 지닌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적 실천으로부터 창발(emergence)된다는 것, 따라서 항상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불확실성과 가변성을 지니는 다중체(multiplicity)³⁰⁾라는 것이다.³¹⁾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ANT는 과연 ‘사회’는 무엇이고 ‘사회적’이란 용어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되묻는다. 사회과학자들이 어떤 현상에 대해 ‘사회적’이란 형용사를 부여할 때, 그들은 안정화된 상황들을 표시한다. 개인들의 단순 합 이상의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고 그것은 일정한 ‘구조적’ 성격을 갖는다고 전제해왔다. ‘사회 질서’, ‘사회적 체계’, ‘사회적 차원’, ‘사회적 구조’ 등으로 명명되는 특정한 종류의 현상과 존재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문제는 마치 그 형용사가 경직된, 강철 같은, 생물체적인, 경제적인, 정신적인, 조직적인, 또는 언어적인 등과 같은 다른 용어들과 비교될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이란 말이 물질의 한 유형을 의미하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³²⁾

들과 상호 의존하며 ‘사회적인 것(the Social)’은 ‘자연적인 것(the Natural)’과 서로 중첩 내지 배태되어(embedded)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30) ‘다중체(multiplicity; multiplicité)’는 ‘다양체’로도 번역하며 들뢰즈에 의해 어떤 것에 고정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연결 접속을 늘림에 따라 속성의 변화를 겪으며 다양한 의미와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개념화되었다. 다중체에 대한 논의는,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Gilles Deleuze and Félix Guattari), 『천개의 고원』, 20~23쪽; 마누엘 데란다(Manuel De Landa), 『강도의 과학과 잠재성의 철학: 잠재성에서 현실성으로』, 이정우·김영범 옮김(서울: 그린비, 2009), 30~41쪽 참조.

31) 김환석, “두 문화, 과학기술학, 그리고 관계적 존재론,” 『문화과학』, 제57호 (2009년 봄호), 17쪽.

32) Bruno Latour, *Reassembling the Social*(Oxford Univ. Press, 2005), p. 16.

우선 문제는 이렇게 사회 또는 사회적인 것을 어떤 실재하는 집단적 실체 또는 결과물로 볼 때, 과연 ‘사회적인 것’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집합적 과정 동안의 운동(움직임)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최소한 사회적인 것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인간들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끊임없는 관계의 운동인 것이다. 언어를 통해 고정되고 단단한 집단적 실체로 묘사되는 것과 실제로 다양한 관계에 의해 끊임없이 관계의 운동을 하는 것 사이—개념과 실제 사이—의 괴리와 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로, 이런 사회적인 것을 구성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이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회’ 또는 ‘사회적’이라는 용어가 붙는 수많은 개념에서 ‘사회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무엇으로 구성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렇게 개념과 실재, 또 개념과 개념 사이에도 매우 모호하고 허술한 구석이 발견되었음에도 왜 사회적인 것은 뒤르켐에 의해 호명된 이후 그토록 무소불위의 권위와 영광을 누려온 것일까?

ANT는 기원적 의미로 돌아가 다시 연계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의 개념을 재정의할 것을 주장한다. 실재를 왜곡하고 적절하게 분석하는 것을 방해함에도 학습과 훈련을 통해 ‘사회적인 것’이 상식으로 수용되어왔다면, 그것에 대한 재정의는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라투르는 사회의 우산 아래 ‘모아진’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욱 철저하게 면밀히 검토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기한다.³³⁾ 자체적으로 고유한 사회적인 것이 아닌, 다양한 것들의 결합 유형이라는 뜻으로 사회학을 이런 결합체들(associations)의 자취를 좇는 작업(=결합체의 사회

33) 라투르는 ‘Social’의 어원인 라틴어 ‘Socius’가 지금과 같이 인간에 국한된 어떤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을 가리지 않고 ‘동반(companion)’ 또는 ‘결합(association)’하는 모든 것을 뜻했음을 강조한다. *Ibid.*, p. 16.

학(the sociology of associations)]으로 규정해야 함을 주장한다.

그런 일환으로 뒤르켐과 동시대의 학자였던 가브리엘 타르드라는 사회학자를 ANT 학자들은 재발굴한다. 뒤르켐이 선도했던 ‘사회적인 것의 사회학’이 아닌 ‘결합체의 사회학’을 개척했던 타르드에 주목한 것이다.³⁴⁾ 타르드는 그 당시 뒤르켐이 사회 연결(social link)에 대한 이해를 사회 공학(social engineering)에 목적을 둔 정치 프로젝트로 대체하여 원인과 결과를 혼동함으로써 사회를 설명하는 임무를 포기하였고 불평하곤 했다.³⁵⁾ 타르드는 당시 젊은 뒤르켐과는 다르게 사회적 인 것은 특수한 실재의 영역이 아니라 결합의 원칙(a principle of connections)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³⁶⁾

ANT의 주창자들은 이런 타르드의 문제의식을 기초로 ‘사회적인 것’을 어떻게 ‘재조립’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첫째, ‘사회적인 것’을 특수한 영역으로 미리 제한하지 않고 보는 것이다. 둘째, 어떻게 행위자들을 추적 가능한 수단들(traceable the means)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어떤 절차를 거쳐야 사회적인 것을 사회(society) 안에서가

34) 타르드의 사회학은 2000년대 들어 ANT 학자들에 의해 새롭게 조명되면서 르네상스를 맞이했다. 그러나 타르드를 역사의 먼지 속에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은 들뢰즈에 의해서였다. 들뢰즈는 그의 주저들을 통해서 타르드의 미시사회학을 새롭게 발굴한 바 있다. 질 들뢰즈(Gilles Deleuze), 『차이와 반복』, 182~183쪽; 들뢰즈·가타리(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천개의 고원』, 416~417쪽.

35) Bruno Latour, *Reassembling the Social*, p. 13.

36) 들뢰즈는 “타르드가 뒤르켐을 비난한 것은 ‘수백만 사람들의 유사성’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타르드는 ‘비인격적 소여들 아니면 위대한 인간들의 이념들’이라는 양자택일의 자리에, 자잘한 사람들의 변변찮은 관념들, 변변찮은 발명들, 그리고 모방적 흐름들 사이의 상호 간섭들을 놓는다. 타르드가 창시한 것, 그것은 미시사회학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질 들뢰즈(Gilles Deleuze), 『차이와 반복』, 183쪽.

아니라 집합체(collective) 안에서 재조립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를 고민한다.³⁷⁾ 모든 행위자와 현상을 특정한 거대 개념에 환원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이 세계를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행위자들에 대한 추적을 통해 그 행위자들의 결합이 어떻게 세계를 안정시켰는지 설명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³⁸⁾ 결국 ANT에서 사회란 인간-비인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집합체이며 특정 구조와 체계로 환원 불가능한 국지적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변적인 것이다. 라투어는 이에 대해 “어떤 현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연결망 속에 파리를 틀었다(entrenched)는 것”³⁹⁾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3) 행위자의 행위성과 네트워크의 강도

ANT는 인간의 특정 능력 — 언어(verbalisation), 분류(classification), 의도(intentionality) — 을 기준으로 행위자 여부를 판정하는 인간 중심적인 접근에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 결국 인간/비인간, 즉 주체/객체의 비대칭적 이분법을 처음부터 암묵적으로 전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ANT는 행위자에 대한 안정된 이론에 기초하지 않고 행위자의 ‘급진적 비결정성(radical indeterminacy)’을 가정한다. 예를 들어 행위자의 능력과 규모, 행위 저변의 동기 등이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인간의 특정 능력을 통해 행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비인간의 기호 생산 및 의사소통 능력을 무시하는 인간 중심주의일 뿐 아니라, 인간 실체에 대한 내재적 본질주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다. 인간과 인간이

37) Bruno Latour, *Reassembling the Social*, p. 16.

38) *Ibid.*, p. 23.

39) Bruno Latour, *Pandora's Hope*(Harvard Univ. Press, 1999), p. 155.

만나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상호 행위성이 달라지듯, 인간과 비인간이 만나도 서로의 행위성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은 서로 대면하면 서로의 정체성을 규정하려 하고 동시에 연결망 구성 과정에서 서로의 속성을 교환하게 된다. 모든(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은 서로 만나서 서로의 속성을 교환하며 정체성을 변형시킨다. 이처럼 네트워크는 인간을 비롯해 인공물, 제도, 기술, 과학, 자연적 요소들을 사용하여 함께 꿰매어지는데, 이때 행위자들 사이에 속성의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다.⁴⁰⁾ 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연결되고 속성을 교환하며 ‘정체성’ — 행위자를 구성하는 속성들 — 이 변화하기 때문이다.⁴¹⁾

요약하면 ANT에서의 행위자는 이질적인 인간-비인간 행위자들 간의 연결망에 따라 자신의 속성 또는 정체성이 계속 변화하는 역동적 실체인 것이다. 가령 파스퇴르(Louis, Pasteur)가 실험을 하기 전과 한 후의 ‘탄저균’은 동일한 사물이지만, 실험실로 옮겨진 후 각종 실험기구와 기록, 인간의 관찰 및 손길과 결합해 실험실 밖 세상의 탄저병을 치료할 수 있는 행위자로 번역되면서 그 정체성이 변화된다. 결국 실험 후 연결망이 변화했고 정체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서로 다른

40) 화이트헤드는 그것을 ‘사건’이라고 보는 견해를 이미 제시한 바 있다. *Ibid.*, p. 155.

41) 인간과 비인간이 서로 만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 맺기, 즉 기술적 매개(technical mediation)의 4가지 유형은 첫째, ‘목표의 번역(goal translation)’ 혹은 ‘교란(interference)’, 둘째, ‘복합(composition)’, 셋째, ‘시간과 공간의 접힘(the folding of time and space)’ 혹은 ‘가역적인 블랙박스화(reversible blackboxing)’, 넷째, ‘상징과 사물의 경계 교차하기(crossing the boundary sign and things)’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Ibid.*, pp. 176~177; 홍민, “분단과 예외상태의 국가: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와 국가폭력,” 『북한학연구』, 제8권 제1호(2012), 71~72쪽 참조.

실재라고 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충이 주어지기 전/후, 어떤 사람이 군복을 입기 전/후,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기 전/후, 그들의 속성, 행위성(agency) 그리고 목표에는 변화가 온다.

다시 말해 행위자의 행위성은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결합을 통해 속성을 교환함으로써 획득되는 것이다. 독자적으로 그 자체로 행위성을 갖는 행위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행위자와 결합하고 속성을 교환을 하는 것을 통해 행위성을 갖는 것이다. 이 속성의 교환을 통해 상호 결합하는 것이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라고 할 때 떠올리듯, 행위자를 점(點)으로, 두 행위자 사이의 접촉 빈도에 따른 친밀성을 선(線)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네트워크’는 ANT가 말하는 네트워크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행위자-네트워크’ 사이에 ‘—’을 보통 넣는 이유는 행위자와 네트워크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행위자 A는 행위자 B와 속성 교환(결합)을 통해 새로운 속성을 지닌 행위자 C가 되고 이 C는 또 다른 행위자와의 연결 가능성을 갖게 된다. 행위자는 네트워크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행위자 자체가 네트워크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ANT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라는 용어는 이 이론의 이해에서 많은 오해를 가져오는 말 중 하나이다. 이런 오해는 대중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이 용어가 갖는 일상적 용법으로부터 연유한다. 우선 행위자-네트워크에 하수도나 철도, 지하철, 전화 등의 ‘네트워크’ 같은 통상적인 기술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네트워크는 다른 어느 것보다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강제적이며 전략적으로 조직된 기술 네트워크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이런 네트워크는 행위자 네트워크가 취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 안정화된 상태(블랙박스) 중 하나이긴 하지만 ANT가 말하는 네트워크는 아니다. ANT에서

다루는 행위자-네트워크는 국소적이거나 필수적인 경로가 없거나 전략적으로 위치된 노드가 없는 등 기술적 네트워크의 모든 성질을 결여한 상태이다.⁴²⁾

두 번째 오해는 사회 연결망 이론(social network theory: 이하 SNT)에서 말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혼동하는 경우이다. SNT에서의 네트워크는 개별 인간 행위자들의 사회적 관계, 예컨대 그들의 접촉 빈도, 분배, 동위성, 근접성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ANT는 행위자나 행위소(actant)라는 용어를 인간 행위자에 제한하지 않고 비인간, 비개인적 존재들까지 확장한다는 점에서 SNT의 네트워크가 인간들 관계에 대한 정보에만 국한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⁴³⁾ 또한 접촉 빈도와 근접성은 속성 교환의 결과적 표현이지 그 원인이 아닌 것이다.

ANT는 근대 사회가 지위, 계층, 영역, 범주, 구조, 체계라는 면(面)이나 원, 수직적 층위 등을 표현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결코 이해될 수 없으며 사회가 섬유 모양의, 실과 같은, 철사 같은, 끈 같은, 밧줄 모양의, 모세관의 성격을 갖는다고 인식해야만 근대 사회를 충분히 기술할 수 있다고 본다.⁴⁴⁾ 오히려 ANT는 계층이나 구조 같은 전통적인 단어에 수반하는 존재론, 위상학, 정치학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그러한 전통적인 단어들이 만들어내는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한마

42)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 관하여: 약간의 해명, 그리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 『인간·사물·동맹』, 홍성욱 옮김(서울: 이음, 2010), 97~98쪽.

43) 위의 글, 98쪽.

44) 라투르는 ‘네트워크’란 단어를 만든 사람은 디드로(Diderot)라고 주장한다. ‘네트워크(프랑스어 *réseau*)’라는 단어는 디드로가 데카르트적인 물질과 영혼의 구분을 피하기 위해 물체 등을 기술하는 데 처음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처음부터 강한 존재론적 구성 성분이었던 것이다.

디로 어떻게 그런 용어와 개념이 하나의 사회적 실재로서 ‘블랙박스’ 처럼 상식이 되었는가를 묻는다.

이렇게 ANT는 사회를 설명하는 용어에도 변화를 준다. 즉 기존에 사회를 설명하면서 동원하던 지위, 계층, 영역, 범주, 구조, 체계 등이 주로 인간 행위자가 놓여진 높낮이(위계)나 규모(범주), 넓이(영역), 면 또는 원과 같은 덩어리(구조), 격자(체계) 등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면, ANT는 연결의 강도(strength)를 표현하는 용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실 높낮이, 규모, 넓이, 덩어리, 격자 등은 행위자(인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인간)이 담겨진 그릇(용기)을 주로 표현하는 것으로 행위자는 담긴 그릇의 모양에 따라 영향을 받거나 그것들에 의해 간혀진 존재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릇들은 대체로 2차원 또는 3차원적인 것이다.

그러나 ANT는 인간 행위자를 그런 그릇에서 풀려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들 풀려난 인간 행위자들이 비인간 행위자들과 어떻게 힘겨루기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연결과 결합의 강도가 어떠한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즉 네트워크의 강도가 중요하다. 네트워크의 강도는 집중력, 순수성, 통일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확산, 혼성, 약한 연결들의 엮임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저항, 완고함, 강함은 약한 결합들의 엮임, 짜임, 누빔, 꼬임을 통해 더 쉽게 얻어진다고 보며, 각 연결이 비록 강하다 해도 그 자체는 여전히 더 약한 실들로 엮여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것은 푸코(Michel Foucault)의 미시권력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⁴⁵⁾

45) John Law, “Power, discretion and strategy,” pp. 165 ~ 191.

4) 배경과 전경 뒤집기: 거시-미시를 횡단하는 국지성의 추적

ANT는 사회적 법칙이나 자연적 법칙과 같은 보편적 법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를 통해 국지적 우연성을 제거하거나 또는 국지적 우연성을 특수성으로 파악하는 대신, 환원할 수 없는 국지성으로부터 출발할 것을 주장한다. 오히려 ANT는 보편성이나 질서는 규칙이 아니라 설명되어야 할 예외라고 본다.⁴⁶⁾ 보편적 법칙이나 질서를 전경에 놓고 모든 국지성을 배경으로 모호하게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놓은 양상이라는 것이다. 법칙이나 질서는 모든 것의 결과이지 그것이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ANT는 배경/전경 뒤집기를 통해 진정 설명되어야 할 것은 국지적·국소적 차원에서 발견되는 행위자들의 다양한 연결이지, 이들 모두를 결과-보편적 법칙이나 질서-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본다.⁴⁷⁾

이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ANT는 사회이론이 생겨난 이래 유행해 온 거시/미시 구분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할 것을 주문한다. 기존 사

46) 그런 측면에서 ANT는 무질서로부터의 질서나 카오스 철학과 약간 유사성을 보이며 민속방법론(ethnomethodology)과 실질적 연관이 많이 있다.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 관하여: 약간의 해명, 그리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 101쪽.

47) 이런 측면에서 라투르의 지적 원천이자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미셸 세르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의미심장하다. “가장 있음직한 것은 무질서이다. 무질서, 다시 말해서 구름 또는 바다, 천둥치는 비바람, 잡다한 사람들의 무리와 군중, 카오스, 혼란은 거의 언제나 존재한다. 현실은 합리적이지 않거나 극단적인 한계에서만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예외와 드문 것과 기적에 관한 과학이 있을 뿐이다. 섬, 산발적인 것, 그리고 초구조에 관한 지식이 있을 뿐이다.” “즐거운 지식이란 질서가 무질서로 반전되기를 기대하게 하는 반면에, 새로운 지식은 언제나 순서 구조를 답습하며 쉽게 순서 관계 속으로 편입된다. 권력은 바로 이 순서 구조이자 이 순서 관계, 곧 질서이다.” 미셸 세르(Michel Serres), 『헤르메스』, 10~12쪽.

회이론에서 사용되어온 미시/거시 구분은 개인에서 가족을 거쳐 친족, 그룹, 기관 등으로 확장되어 국민국가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위계를 은유하거나 전제하게 한다.⁴⁸⁾ ANT는 이런 미시/거시 구분이 사회이론을 망치게 하는 세 가지 특징을 지적한다. 첫째, 사회가 마치 실제로 상층부와 하층부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 것처럼 상향식 혹은 하향식 위계 관계에 얽매어 있다는 것이다. 어떤 것들 사이를 크고 작음으로 볼 때 생기는 문제점은 그들 사이를 설명할 때 작은 것을 큰 것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려는 유혹이다. 즉 크고 작음을 설명의 인과관계로 보는 것이다. 둘째, 거시 규모를 가진 요소가 다른 성질을 가지므로 미시 규모의 요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전제하거나 그렇게 실제 연구를 수행하게 한다는 점이다. 셋째, 개인이 개별적인 존재와 집합적 존재를 어떻게 오가는지 추적하기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하나의 개인이 어떻게 거시적인 구조, 체계, 국가 등으로 오가는지 추적이 불가능하다.

반면 ANT는 미시-거시 구분을 ‘네트워크’라는 하나의 메타포로 대체해버린다. 한 네트워크는 더 크거나 작은 것이 아니라, 단지 더 길거나 더 강하게 연결된 것뿐이다. ANT에서의 네트워크는 선형적인 위계관계를 갖지 않는다. 사회의 상층부와 하층부라는 가치론적 신화 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또한 특정한 장소가 거시적인지 미시적인지에 관한 가정을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추적을 통해 사회를 표현하는 수직적 공간, 위계, 층위, 거시적 규모, 전체성 등이 어떻게 얻어지고 또 무엇을 재료로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개인과 대중을 상반된 것으로 파악하고 구조

48)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 관하여: 약간의 해명, 그리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 103쪽.

와 행위를 상반된 것으로 파악하는 대신에 하나의 요인이 연결을 통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중요해지는지와 그 요인이 연결을 잃었을 때 어떻게 그 중요성을 잃게 되는지를 추적할 뿐이다.⁴⁹⁾

한편 ANT는 공간적 차원의 경계 역시도 제거한다. 주로 사용되는 위계, 구조, 체계, 범주 등은 표현상에서 공간적 표면에 경계를 긋고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보통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갖게 된다. 위계의 내부와 외부, 계층의 구분선, 구조의 안과 밖, 체계의 안과 밖 등등 기존의 사회이론은 이런 공간적으로 특정한 면과 내부/외부의 경계 짓기를 통해 사회를 설명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리고 개인은 바로 이런 내부/외부의 안과 밖에서 그 존재론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반면에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쓰면 내부와 외부의 경계는 불필요해진다. 특정한 공간적 제약을 주지 않는다면 네트워크는 외부가 없는 법이다. 다만 연결 여부와 연결 정도가 중요할 뿐이다. 행위자들이 어떤 선행적 경계에 의해 존재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은 연결된 위치와 연결 정도에 따라 공평하게 대접을 받는다. 오로지 두 요소 사이에 연결이 만들어졌는가 아닌가, 그 연결이 어떤 강도를 가지고 있는가 등이 중요하다. 만약 경계가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최종적인 결과로서 제시될 수 있을 뿐이다.

5) 블랙박스와 원격작용: 매끄러운 상식과 표준의 세계

ANT에서 ‘블랙박스(black box)’는 무엇이든 매우 확고하게 확립되어 우리가 그것의 내부를 당연히, 매끄러운 상식으로 여길 수 있는

49) 위의 글, 104~105쪽.

행위소(actant)⁵⁰⁾를 뜻한다. 가령 기술 시스템들이 사회 조직 속으로 완전히 통합된 뒤에는 ‘자연적인 것’이 되어 경관과 상식 속으로 사라져버린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된다. 사실 우리가 물질 대상이 행사하는 힘을 일반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⁵¹⁾ 왜냐하면 대부분 일상에서 지나치는 사물과 기술, 제도는 그 내부의 네트워크를 속속들이 인지할 필요 없이 이미 우리의 상식과 경관 속에 묻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ANT의 블랙박스는 전통적인 실체를 대체한다. 전통적인 실체들은 일자인데, 그것들이 단단한 하나의 상식이나 사물로 남아 있는 한 우리는 그것들을 일자로 취급할 뿐이다. 블랙박스는 그것이 매끈하게 작동하는 한 그것을 구성하는 동맹들의 방대한 네트워크를 잊게 한다. 사실 행위소들은 상호이질적인 행위자들의 결합이기 때문에 갈등과 논쟁 가운데서 태어나는데, 그럼에도 그것들은 결국 안정된 배치로 고정화된다. 그러나 논쟁을 재개하여 블랙박스를 다시 열면 행위소가 매끈하고 통일된 어떤 본질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된다.⁵²⁾

따라서 모든 행위소는 상황에 따라 블랙박스 아니면 다중적 네트워크로서 간주될 수 있다. 그 이유는 행위소는 놓인 맥락에 따라 질료 아니면 형상이 될 수 있는데, 더 큰 조립체에 대해서는 질료(matter), 자신의 우산 아래 있는 더 작은 구성 행위소에 대해서는 형상(form)이 되기 때문이다.⁵³⁾ 행위소는 항상 위기와 논쟁으로부터 태어나는데,

50) 기호학에서 빌려온 행위소(actant) 개념은 ‘행위자’가 인간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인간과 비인간을 함께 가리키기 위해 ANT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51) 주디 와이즈먼(Judy Wajcman), 『테크노페미니즘: 여성, 과학 기술과 새롭게 만나다』, 박진희·이현숙 옮김(서울: 궁리, 2009), 66쪽.

52) Bruno Latour, *Science in Action*, p. 131.

그것이 세계 속에 발판을 확립하는 데 성공할 때에만 우리는 그것의 탄생 고난을 잊고 결국 그것을 이음새 없는 블랙박스로서 취급한다.⁵⁴⁾ 즉 노골적인 사실, 상식, 사물로서 단순히 제시될 때 진정한 블랙박스가 된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간 활동의 목적은 블랙박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정을 형성할 때, 결혼을 결심할 때, 또는 원고를 작성할 때, 우리의 희망은 끊임없이 닳거나 파괴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블랙박스는 유지비가 적게 든다. 어떤 것이 상식이나 표준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될지 결코 걱정하지 않으며 의지하기 때문이다.⁵⁵⁾ 그래서 성공한 블랙박스는 시공간을 압축한다. 그래서 블랙박스는 모든 시간 공간의 궤적을 지우고 현재의 사실, 당연한 것으로 자신의 다중적 네트워크를 상식 속에 숨긴다. 그러나 블랙박스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블랙박스는 결코 완전히 닫혀 있지 않으며, 결코 모든 도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블랙박스는 수많은 인간-비인간 행위자 사이의 연결의 ‘접힘(folding)’ 또는 ‘압축’인데, 그 상태가 믿어 의심치 않는 상식이나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크게 블랙박스는 두 가지 주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하나는 블랙박스가 상식과 표준으로서 주목을 적게 받고 무시될 때이다. 블랙박스는 다른 행위자들의 필수적인 통과 지점(obligatory Passage Point: OPP)이 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다른 행위자들이 블랙박스(상식, 표준, 경관)를 경유할 때 그것은 블랙박스로서의 존재

53) Graham Harman, *Prince of Networks: Bruno Latour and Metaphysics*, p. 34.

54) *ibid.*, p. 36.

55) *ibid.*, p. 37.

의의와 생명력을 갖는다. 상식이거나 표준이 되어 모든 사람이 그 상식을 믿어 의심치 않고 받아들이며 필수적인 통과 지점으로 여길 때, 블랙박스는 하나의 행위소로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무시된다는 것은 필수적인 통과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가 가능해 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행위소는 곧 네트워크의 힘을 잃고 소멸되기 마련이다.

다른 하나는 너무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다. 이런 관심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상식을 의심하게 되는 관심일 경우, 그런 관심 덕분에 블랙박스는 의심을 품은 사람들에 의해 찢겨져 개봉되어 초토화될 위험을 안게 된다. 가령 우리는 자신의 연애편지가 무시당하기를 바라지 않지만, 이의가 제기되거나 비판받거나 문법에 대해 빨간 펜으로 지적받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⁵⁶⁾ 또한 ‘신성한 안보’, ‘국방력 강화’라는 블랙박스가 어느 순간 특정 사건으로 군사기밀 누출, 수조 원의 예산 쟁탈전, 무기중개업체 및 로비스트, 관료들, 방산업체 연구원들 사이의 뇌물과 인맥, 동맹 속에 감춰진 무기 판매를 위한 압력 외교, 첨단무기에 대한 비합리적 정치 결정 등으로 점철된 것임이 드러나는 순간을 생각해 보라. 이들은 수많은 인간 행위자들은 물론 기술, 과학, 전투기 성능 검사서, 화폐, 협정문, 그래프, 견적서, 환율, 보안장치, 컴퓨터, 도청, 호텔, 뇌물, 동맹, 의회 등의 비인간을 통해 접혀 있었던 블랙박스였던 것이다.

한편 행위소들을 연결하고 그것을 하나의 블랙박스로 접히게 하려면 행위소들이 어떤 특징들을 공유해야만 한다. 즉 한 행위소가 다른 한 행위소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한다. 가령 미국의 톰슨사(Thomson

56) *ibid.*, p. 38.

Scientific)라는 연구정보 업체는 SCI, SSCI 등으로 국제 학술지들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겨 학술지의 권위를 위계화한다. 이렇게 인준되고 등급화된 학술지를 기준으로 각국에서는 여러 방식으로 학자들의 인용과 연구 업적에 점수를 매긴다. 민간 업체가 이런 이상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누구도 그것이 일개 민간업체가 수행하고 있는지 모르거나 여기에 의문을 달지 않는다. 하나의 블랙박스인 것이다. 여기엔 수많은 행위소가 연결되어 있다. 각 대학교나 국가 교육기관, 각 분야별 학자들, 학술지, 논문심사 매뉴얼, 심사 네트워크, 윤리 지침, 인용지수, 그래프, 등급 기준표, 분류 목록, 데이터 프로그램, 컴퓨터, 전산업체 등등. 이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톱슨사라는 블랙박스를 통해 연결되어 있고 SCI라는 의무통과지점(OPP)을 통해 행위자들은 움직인다. 이것이 일명 ‘원격작용(action at a distance)’이라고 할 수 있다.⁵⁷⁾ 원격작용은 물리적으로 멀고 가까움과 상관없이 어떤 상식과 표준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행위자들을 조종하고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한 행위소를 이동성 있고, 지속성 있게, 그리고 조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추상화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SCI를 통해 멀고 가까운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는 동일한 추상화 및 인지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번역’이다. 톱슨사는 학술지 세계의 위계와 권위를 SCI를 통해 보고 느끼도록 사람들에게 세계를 번역해주는 것이다.

사실상 인간 또는 비인간 등의 행위자들이 동맹을 맺을 때면 언제나 원격작용을 하며, 이것이 없다면 어떤 종류의 실재도 없을 것이다. 이론에 관한 것이든, 군대에 관한 것이든, 정책에 관한 것이든, 음식점

57) 원격작용에 대해서는, *ibid.*, pp. 47~55.

에 관한 것이든, 기계에 관한 것이든, 모든 상황에서 물어야 하는 유일한 질문은 그것들이 번성하기에 충분할 만큼 행위소들을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라투르가 얘기하듯 다양한 조립체의 목표는 어떤 말썽 많은 독립적인 행위도 금지한 채 수많은 동맹자를 걸보기에 단일한 전체로 융합하는 것이다. 블랙박스도 일종의 기계인데, “아무것도 집단에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힘들이 서로 견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하나의 음모, 하나의 전략, 일종의 책략이다.”⁵⁸⁾

6) 번역과 권력: 누가 세상을 대변하는가?

ANT에서 ‘번역(translation)’은 권력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다.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풀이해내는 것이며, 한 행위자의 이해나 의도를 다른 행위자의 이해나 의도에 맞게 그의 언어로 치환하기 위한 프레임을 만드는 행위이다. 즉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와 결합해서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과정이 ‘번역’이다. 성공적인 번역 과정은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즉 어떻게 행위자와 조직이 그들을 이루는 부분과 조각들을 동원하고 배열하며 하나로 유지할 수 있는지, 또한 해체와 소멸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지, 그 과정에 주목한다. 따라서 어떻게 번역의 과정을 숨기고 다양한 부분과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질적인 네트워크 대신 규칙화된 행위자로 보이게 할 수 있는지가 ANT의 주요 연구 관심사이다.⁵⁹⁾

칼롱은 다소 거친 도식이지만 번역이 어떤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

58) Bruno Latour, *Science in Action*, p. 129.

59)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 외, 『인간·사물·동맹』, 홍성욱 옮김(서울: 이음, 2010), 50쪽.

또는 블랙박스가 갖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기존의 네트워크를 교란시키는 ‘문제 제기(problematization)’, 이해관계를 갖는 수많은 다른 행위자에게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관심을 끌고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는 ‘관심 끌기(interessement)’,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행위자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등록하기(enrollment)’, 그리고 이들을 자신의 네트워크로 연결시키는 ‘동원하기(mobilization)’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⁶⁰⁾ 이 번역의 과정을 단순화하면, 여러 행위자를 끌어모아 그들을 특정한 이해관계의 네트워크 속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이들을 대신해 세상을 대변하여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가령 파스퇴르의 탄저균 실험이 이 탄저균으로 인한 공포와 피해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탄저균 실험실로 끌어모으고 백신의 개발을 통해 세상을 대변하게 되는 것과 같다.

결국 권력이란 다양한 이해관계를 협상할 수 있는 번역의 능력 또는 그 번역의 효과이다. 가령 연구소, 기업, 정부조직, 군대 등 권력을 수반하는 조직들은 네트워크의 건설을 방해하는 저항세력을 무력화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지속시키며 필요에 따라 권력이 공간을 가로질러 작동하는 기제를 만들고, 네트워크에 복속된 다수의 행위자를 잘 대변하며 미래의 네트워크 변화 가능성을 예측함으로써 권력을 유지·강화시킨다. ANT와 그 사례들을 잘 살펴보면 성공적인 권력자가 어떻게 힘을 획득했는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⁶¹⁾ 이처럼

60) Michel Callon, “Some Elements of a Sociology of Translation: Domestication of the Scallops and the Fisherman of St. Brieu’s Bay,” John Law(ed.), *Power, Action and Belief: A New Sociology of Knowledge?*, *Sociological Review*, Monograph 32(London: Routledge, 1986).

61)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답』, 홍성민 옮김(서

번역을 통해 나타나는 권력은 하나의 블랙박스가 행하는 번역부터 여러 블랙박스의 연결을 통해 행하는 번역까지 이 행위자(블랙박스)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한다. 이들은 여러 이질적인 행위자들의 배치(arrangement)·조립(assemblage), 그리고 결합 또는 속성교환을 통해 생성되고 구성되는 아장스망(agencement)이자 사회-기술적 연결망(socio-technical network) 또는 장치(device; apparatus; dispositif)라고 볼 수 있다.⁶²⁾

이런 ANT 논자들은 아장스망, 사회-기술적 연결망의 개념을 사용하며 푸코의 장치 개념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푸코와 아감벤(G. Agamben)의 ‘장치(dispositif)’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푸코는 ‘장치’를 “담론, 제도, 건축상의 정비, 법규에 관한 결정, 법, 행정상의 조치, 과학적 언표, 철학적·도덕적·박애적 명제를 포함하는 확연히 이질적인 집합”이라고 보고, “장치 자체는 이런 요소들 사이에서 세워지는 네트워크”이며 “일종의 형성체/형성물”로서 “힘 관계에 대한 어떤 조작이며, 그런 힘 관계에 대한 합리적·계획적 개입”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즉 “지식의 여러 유형을 지탱하고, 또 그것에 의해 지탱되는 힘 관계의 전략들”이 장치이다. 아감벤은 푸코의 ‘장치’ 개념을 좀 더 일 반화한다. “생명체들의 몸짓, 행동, 의견, 담론의 포획, 지도, 규정, 차단, 주조, 제어, 보장하는 능력을 지닌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장치”라고 본다. 따라서 “감옥, 정신병원, 판옵티콘(Panopticon), 학교, 고해, 공

출: 나남, 1991), 235~236쪽.

62) 이질적 행위자들의 배치, 배열, 조립을 통해 생성되는 ‘아장스망’을 ‘사회-기술적 연결망’과 ‘장치’라는 개념 속에서 설명하는 연구로는, Fabian Muniesa, Yuval Millo and Michel Callon, “An introduction to market devices,” Michel Callon, Yuval Millo and Fabian Muniesa(eds.), *Market Devices*(Oxford: Blackwell, 2007), pp. 1~12.

장, 규율, 법적 조치 등과 같이 권력과 명백히 접속되어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펜, 글쓰기, 문학, 철학, 농업, 담배, 인터넷 서핑, 컴퓨터, 휴대 전화 등도, 그리고 언어 자체도 권력과 접속되어 있다”고 본다.⁶³⁾ 이 개념들은 공통적으로 이질적인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의 결합을 통해 구성되고 생성되는 사회-기술적 연결망으로서의 번역의 능력, 즉 권력을 지목하는 데서 동일한 지평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북한 연구에 주는 방법론적 가능성

ANT의 문제의식과 주요 개념들이 북한 연구에 주는 방법론적 유용성은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다.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의 방법론적 성찰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ANT가 제기하듯 ‘사회적인 것’에 의해 구축되었던 사회과학적 설명체계의 근본적 한계와 문제점을 북한 연구에서 어떻게 성찰하고 수용할 것인가이다. 특히 지금까지 북한을 설명해왔던 설명체계, 표상, 모델, 개념, 즉 이른바 ‘북한적인 것’으로 명명하거나 간주하던 것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ANT의 문제의식 아래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이다. 둘째, ANT의 문제의식과 주요 개념들을 통해 북한 연구의 주제를 재구성하고 어떻게 다양화할 것인가이다. 마지막으로 ANT를 활용하여 연구방법의 차원에서 북한 연구가 갖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이다.

63)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 『장치란 무엇인가? 장치학을 위한 시론』, 양찰렬 옮김(서울: 난장, 2010), 33쪽. 이 개념은 ‘번역’과 유사한 맥락 아래 읽히며 ANT 역시 푸코의 통찰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John Law, “Power, discretion and strategy,” pp. 166~172.

우선 ANT가 제기하는 사회과학적 설명체계의 근본적 한계와 문제점을 복한 연구에서 어떻게 성찰하고 수용할 것인가이다. ANT가 기존 사회학(크게는 사회과학 일반)이 ‘위기’를 맞았다고 선언하는 이유는, 사회적 차원이나 사회구조라고 할 수 있는 특정한 영역이나 실재가 더는 없는데도, ‘사회적인 것’을 여전히 ‘경제적인 것’이나 ‘심리적인 것’처럼 그 자체의 독자적인 영역과 특성이 있는 하나의 재료(material)로 간주하는 관행이 계속되기 때문이다.⁶⁴⁾ ‘사회적인 것’은 선형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데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 데서 사회학의 위기가 발생했다면, 그 위기의 극복은 ‘사회적인 것’을 새롭게 정의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한 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복한적인 것’으로 공공연하게 전제되고 명명되던 것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정의가 필요하다.

1) ‘복한적인 것’의 재조립: 연구방법론의 가능성

(1) 행위자 – 네트워크 국가와 국가의 행위성: 다중성 · 수행성 · 물질성

ANT의 문제의식이 복한 연구에서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ANT

64) 물론 설명과 서술의 편의를 위해 개념과 방법상에서 채택되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런 용어들이 어느덧 실재를 대체하여, 마치 고유의 실재를 가진 어떤 것으로 하나의 블랙박스화되어 군림하는 것이다. 가령 우리는 어느 누군가의 행동, 어느 현상을 보고 과연 그것이 사회적인 것인지, 정치적인 것인지, 경제적인 것인지, 심리적인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가? 만약 그것을 경제적인 것이라고 했다면 그것은 보는 관찰자의 관점에서 그렇게 정의되고 설명된 것일 뿐, 그 행동과 현상이 경제적인 것의 고유한 실재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각은 오히려 설명되어야 할 대상인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을 마치 고유한 실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누군가의 행동이나 어느 현상을 그것에 환원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공공연하게 채택해왔다.

가 사회과학 일반에 제기하듯, ‘북한적인 것’으로 명명되는 개념과 환원적 설명체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기존 북한의 ‘국가 성격’이나 ‘체제 모델’ 관련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상 이 논의들에서 제시되었던 설명 모델은 현재까지도 북한 연구에서 공공연하게 또는 암묵적으로 전제되는 하나의 인식 틀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전체주의, 당 - 국가체제, 신정체제, 유격대국가, 유일체제, 수령제, 군사국가, 스탄체제 등이다. 이 모델들을 ANT의 문제의식 아래 다중성(multiplicity), 가독성(legibility), 수행성(performativity), 물질성(materiality)의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어떻게 국가의 행위성(agency)이 구성되고 변화하는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① 국가의 다중성

우선 문제는 행위자의 측면에서 국가를 단일한 행위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주로 지도자, 지배 그룹, 국가기구를 공공연하게 또는 암묵적으로 국가와 동일시하거나 하나의 단일한 행위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더 나아가 국가를 사회와 구분되는 실체나 행위자로 간주하는 등 국가라는 행위자의 개념적 범주 자체가 모호하게 처리되거나 매우 협소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국가의 행위성 역시 최고 지도자나 상층 권력 엘리트, 국가기구의 지위나 권한, 상징성으로 환원되는 행위성에 한정함으로써 국가의 권력을 지위나 권한, 상징성 소유 여부로 정태적으로 이해하는 한편 그것 자체를 국가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주로 최고 지도자의 행위를 국가 자체의 행위로 보는 발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NT는 국가를 결코 하나의 행위자로 보지 않는다. 국가

최고 지도의 행위를 국가 자체의 행위로 볼 때, 그것은 국가 또는 정치적 리얼리티를 그만큼 묘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⁶⁵⁾ 그것은 국가라는 다중적 구성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라는 일자(一者)의 최종 행위만을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대신 국가는 이념과 재현, 수많은 관료적 행위자들, 그리고 영토성과 인민 등의 매우 복잡한 매트릭스(matrix) 속에서 구성된다.⁶⁶⁾ 네트워크 모델로서 푸코식 국가론에 주목한다면, 국가는 권력을 잡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의 ‘소유’ 둘 다 아니다. 그것은 드러난 결과에 불과하다. 그 대신 국가는 개인 또는 정치기구의 소유가 아니라 ‘영향력의 네트워크’로서 대상화된 주체들을 훈육하는 기구와 메커니즘이며, 권력은 도처에 존재하는 ‘밀접하게 연계된 힘들의 네트워크’이다. 이는 인구 또는 집합체들(collectives)라는 주체의 무리를 감시하고 훈육하는 실천의 배열들(the sets of practices), ‘통치의 기술(art of government)’⁶⁷⁾로 다중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질문은 ‘국가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가’이다. 따라서 국가는 단일한 행위자로 의인화되는 행위체도, 최고 지도자와 동일시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만약 어떤 고정된 단일체로 표상된다면 이것 또한 네트워크의 힘든 창조의 결과인 것이다. 국가는 추상적 완결체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펼쳐진 네트워크로서 우리가

65) Patrick Carroll, *Science, Culture, and Modern State Formation*(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pp. 19~20.

66) Patrick Carroll, *Colonial Discipline*(Dublin: Four Courts Press, 2000), p. 15; John W. Mayer, “The changing cultural content of the nation-state: A world society perspective,” in G. Steinmetz(ed.), *State/Culture: State Formation after the Culture turn*(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pp. 123~143.

67) Bob Jessop, “Bringing the state back in(yet again): Reviews, revisions, rejections, and Redirections,”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11(2001), pp. 149~153.

방문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국지성(localities)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다중체로서 북한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묘사하고 개념화할 것인가이다.

결론적으로 국가는 지도자나 정치체제의 몇몇 특징적이고 일면적인 양상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결합과 네트워크를 통해 이해되어야 하는 다중적인 네트워크의 ‘번역’ 과정을 동반하는 매우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하나의 질서인 것이다. 그것은 북한 연구에서 당연히 여기는 지도자나 엘리트, 기구의 지위나 권한, 상징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어떤 이질적 행위자들의 결합과 네트워크를 통해 획득되거나 변화되고 있는지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를 하나의 행위자로 간주한다고 해도 그러한 국가의 행위성이 총체적으로 발현 가능한 것 역시 다양한 이질적 행위자들의 결합이 가져온 ‘효과’로 볼 수 있다. 국가를 지도자나 엘리트, 기구의 지위나 권한, 상징성으로 환원하여 이해하기보다는 무수한 행위자들이 네트워크화되는 권력의 수많은 국지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② 국가의 수행성

기존 북한 설명 모델들은 북한 정치체제에서 발견되는 지도자, 이데올로기, 관료제 운영 방식, 통제 방식 등 몇몇 특징을 ‘북한적인 것’으로 산출하여 북한 사회를 이들 일정한 정치체제 모형의 틀에 환원하고 속박함으로써 다양한 예외적 의사 분출의 가능성과 출구를 봉쇄하는 단점을 지녀왔다. 이 모델들은 정치체제 일반의 논의 차원에서도 정치체제의 속성이나 메커니즘에 대한 함축을 담기보다는 ‘위로부터’의 통치나 공식 담론의 관점에서 정태적으로 통치 행위의 현상적 이미지를 묘사하는 개념화의 성격이 강하다. 가령 유일체제모델은 북한

의 공식 담론이 자신의 체제를 설명하는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모델을 따른다면 북한 사회의 변화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⁶⁸⁾ 전체주의 모델을 비롯한 다른 설명 모델 모두 사실상 공통적으로 국가 또는 체제에서 내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적 현상을 포착하고 열거하여 그것을 설명 모델로 제시하는 방식이다.⁶⁹⁾

그러나 정작 강력하게 제시되는 ‘위로부터의 통치’ 행위가 어떠한 행위자들의 결합을 통해 가능한지 그것이 형성되고 변화되는 과정, 그것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가닿고 수용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은 매우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누락되기 일쑤이다. 또한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의 사다리 속에 전체 사회를 구조화해놓고 지도자 또는 권력 엘리트, 이데올로기, 국가기구, 정책 담론 등에 대한 것은 거시적인 것으로, 그렇지 않은 일반 주민에 대한 것은 주변적이며 미시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등 거시와 미시의 그릇된 위계를 공공연하게 설정하고 체제 작동의 설명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국가가 운영되고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거시적 차원의 인물, 기구, 제도, 담론의 존재와 군림이라는 한 축과 미시적 차원의 일반 주민의 동의와 순응이라는 이분법 속에 본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가는 ANT에서 보았을 때 고정된 인물, 기구, 제도, 담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를 통해 끊임없이 수행되는

68) 이종석은 유일체제의 특징적 현상으로 수령의 지시에 따라 전당, 전국, 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체계, 동원화되고 군사화된 체계, 담론과 행위 양식의 재생산체계, 개인숭배 현상 등을 들며, 이것을 자발적 동의기제를 구비한 체제로 본다.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210~211쪽.

69) 기존 북한의 국가 성격 및 설명 모델에 대한 정리와 비판적 검토는, 최완규, “북한 국가성격의 이론과 쟁점: 비교사회주의적 관점,”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예외국가’의 공고화』(서울: 한울, 2001), 11~42쪽.

것이다. 그래서 칼롱과 라투르는 묻는다. 어떻게 ‘미시 - 행위자들이 성공적으로 거시 - 규모로 성장하는가?’ 또는 ‘거시적 행위자로 보이게 되는가?’ 그들은 개인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상식적 목소리와 현수막 — 국가라는 이름과 상식 — 아래 모이게 되는가를 묻는다.⁷⁰⁾ 본질적이고 고유하고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거시 - 행위자들 — 국가 또는 지도자, 기구, 제도, 담론 — 은 본래부터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결합된 미시 - 행위자의 실천으로 구성된 것인데, 미시와 거시 행위자들 사이의 사이즈 차이는 선형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다. 행위자의 사이즈는 단지 길고 강한 행위자 - 네트워크를 만드는 ‘번역들’의 결과일 뿐인 것이다.

다시 말해 단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하나로 통합된 것처럼 보이는 국가는 네트워크가 깨어지지 않게 점차 차단함으로써 네트워크를 길게 하고 강해지게 하는 과정, 즉 네트워크의 연결을 통한 번역의 행위이다.⁷¹⁾ 그것은 다른 행위자 또는 세력을 대신하여 말하거나 행하는 권위가 주어지게 하는 사회 - 기술적 ‘번역’의 과정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인간 - 비인간 행위자를 통해 수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추상적이거나 초월적인 것, 또는 주어지는 아니라 일상적인 정치적 실천과 절차, 담론, 제도, 기구, 기술, 과학 등과 같은 무수히 많은 사회 - 기술적 연결망의 단순화, 압축, 접힘(folding)을 통해

70) Michel Callon and Bruno Latour, “Unscrewing the big Leviathan: How actors macro-structure reality and how sociologists help them do so,” in K. Knorr Cerina and A. V. Cicourel(eds.), *Advances in Social Theory and Methodology*(Boston, MA: Routledge, 1981), p. 277.

71) Michel Callon, “Four models of the dynamics of science,” in S. Jasanoff, G. E. Markle, J. C. Peterson and R. J. Pinch(eds.), *Handbook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Thousand Oaks, CA: Sage, 1995), p. 59.

세상을 국가라는 이름으로 번역하는 수행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체제 또는 국가를 특정 인물, 기구, 제도, 담론의 존재와 균림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수행되는가, 즉 그것이 수많은 사회-기술적 연결망으로 결합되고 단순화되어 세상을 번역해내는가 하는 ‘수행성’⁷²⁾의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수행적 국가(performative state)’⁷³⁾라는 관점은 국가가 어떤 것이 된 것(is)이 아니라 행하는(do) 것, 일련의 행위이며, 명사가 아니라 동사, ‘존재(being)’가 아니라 ‘행하기(doing)’라고 보는 것이다.⁷⁴⁾ 따라서 국가는 국가라는 존재의 상식적 요소 및 외양을 생산하기 위해 반복되는 행위이며, 다양한 힘의 관계가 만들어낸 강제적인 틀, 일종의 사회-기술적 연결망 또는 장치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실재인 것이다. 실제로 보이는 국가를 구성적인 행위로 해체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72)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은 오스틴(J. L. Austin)이 『말과 행동(How to do things with words)』(1955)에서 발화행위 이론의 차원에서 개념화한 바 있으며, 데리다(Jacques Derrida)가 ‘기호, 사건, 맥락(Signature Event Context)’에서 오스틴의 수행성 개념을 해체적으로 재구성한 바 있다. 본격적으로 수행성 개념을 재개념화하여 젠더연구에 사용한 것은 버틀러(Judith Butler)의 『젠더 트러블(Gender Trouble)』에서다. 버틀러는 젠더연구를 통해 젠더는 무대 위에서 배우가 행하는 퍼포먼스처럼 언제나 행위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수행성은 행동을 유발하는 언어를 뜻하는 수행문과 같은 것이다. John L. Austin, *How to do Things with Words*(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Jacques Derrida, “Signature Event Context,” trans. A. Bass in Peggy Kamuf(ed.), *A Derrida Reader: Between the Blinds*(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조현준 옮김(서울: 문학동네, 2008).

73) ‘수행적 국가(performative state)’ 개념은 필자가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원용하고 재구성하여 국가이론 차원에서 새롭게 만든 개념이다.

74) 사라 실리(Sara Salih),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김경영 옮김(서울: 엘피, 2007), 113쪽.

③ 국가의 물질성

지금까지 북한체제 또는 국가에 대한 논의에서 많은 인물과 기구, 제도, 정책 등이 인간화되어 주인공으로 등장해왔지만 그것들의 구성과 작동, 외현화에 참여하는 비인간 또는 물질이 갖는 행위성, 인간과 결합해서 갖게 되는 행위성에 대해서는 주목해오지 않았다. 가령 ‘수령’을 단순히 특정 인물의 권위와 상징, 능력의 차원에서 보아왔지만, 수령이 정치적으로나 상징적·담론적으로 하나의 행위성을 갖는 데는 이질적인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결합 과정을 통해서이다. 이 과정에 비인간 행위자로서 물질은 수령이라는 사회-기술적 장치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행위자이자 집착제 역할을 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물질성을 갖는다. 가령 휴대전화 없이 사회적 관계가 힘들듯이 국제공항, 입국심사대, 입국승인 도장, 수하물 검사대, 여권과 비자, 관공서 건물, 국기, 도로, 통신망, 국가코드, 공문, 주민등록증 등이 없으면 개인도 국가도 구성되기 힘들다. ‘국민됨’과 ‘국가됨’은 이 거대한 물질적 접합과 연결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른바 국가를 구성하는 인간, 기구, 제도, 정책, 상징, 담론, 치안, 군대 등 모든 것도 물질성을 가지며 인간과 물질성의 결합을 통해 구현된다. 사실 국가의 외양과 외관은 물론 그것의 내적 동학 역시 물질적으로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북한 연구에서 물질성은 중요하게 부각되거나 주목받지 못했다. 물질성은 국가 통치술의 핵심이자 일종의 통치를 위한 인구와 사회에 대한 가독성(legibility)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⁷⁵⁾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통치에 대한 욕망을

75) 인구와 사회에 대한 가독성을 통치술의 핵심 문제로 바라보는 논의로는, 제임스 C. 스콧(James C. Scott),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전상인 옮김(서울: 에코리브르, 2010) 참조.

위해 구축되는 사회-기술적 연결망이자 통치 대상인 인구를 적절히 배치하고 사회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회-기술적 장치 모두가 인간 행위자와 이 비인간의 물질성을 통해 구현된다.

ANT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비인간도 하나의 행위자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여러 연구에서 물질성(materiality)을 강조하며 국가 관련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이 문제를 다룬다. 그것은 국가가 다양하고 이질적인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이 배치되고 연결된 사회-기술적 연결망⁷⁶⁾ 또는 장치(dispositif, apparatus, device),⁷⁷⁾ 이상블라주(assemblage) 또는 아장스망(agencement)을 통해 수행되는 실재라는 속에서 강조된다.⁷⁸⁾ 다시 말해 ANT는 국가를 연결되고 가입된 구체적 행위자들을 통해 존재를 드러내는 사회-기술적 이상블라주(연결·조립)로서 다룬다는 점에서 물질이 갖는 행위능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간주한다.⁷⁹⁾ 가령 국가는

76) William N. Kaghan and Geoffrey C. Bowker, "Out of machine age?: Complexity, sociotechnical system and actor network theory," *Journal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Management* 18(2001), pp. 258 ~ 259.

77) '장치(dispositif)'란 푸코가 1970년대부터 '통치성'을 사유하며 제시한 개념으로, 여러 이질적인 요소들— 제도, 기구, 법, 치안, 행정조치, 과학적 인표, 철학적 명제 등 담론적이거나 담론적이지 않은 거의 모든 것— 사이에서 세워지는 네트워크이자 이들의 느슨한 집합이며 지식의 여러 유형을 지탱하는 힘 관계를 뜻한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답』, 235 ~ 236쪽. 푸코의 장치 개념에 대한 들뢰즈의 해석은, 질 들뢰즈(Gilles Deleuze), "장치란 무엇인가?,"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박정태 옮김(서울: 이학사, 2007), 470 ~ 485쪽. ANT에서는 푸코의 장치 개념을 사회-기술적 장치(socio-technical device), 기구(apparatus), 아장스망(agencement), 이상블라주(assemblage) 등의 용어를 통해 계승하면서, 일종의 이질적인 것들(인간/비인간)의 배열·배치·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행위성, 행위성의 분배 등을 설명한다.

78) John Allen and Allen Cochrane, "Assemblages of State Power: Topological Shifts in the Organization of Government and Politics," *Antipode*, Vol. 42, No. 5(2010), pp. 1071 ~ 1073.

79) ANT는 푸코의 장치(dispositif) 또는 들뢰즈의 '아장스망'과 유사하게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등록된 다양한 기호화적이고 물질적인 요소들의 이질적인 결합과

‘구축된 환경, 공간, 그리고 기술’을 포함하는 물질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세력(forces)으로서 행위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⁸⁰⁾ 더 나아가 국가가 갖는 물질성은 담론—즉 상징적 의미, 재현, 그리고 인지구조—과 실천—즉 다양하게 조직된 사회적 활동—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북한체제의 이해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무수한 배치와 연결의 사회-기술적 네트워크 또는 장치가 갖는 물질성, 그리고 행위 능력이다. 가령 최고 지도자의 영광을 반영하고 태양왕처럼 그를 고취하고 중심이 되게 하는 인공물, 도시, 그리고 영토처럼 국가를 어떻게 다양한 물질적 요소들을 통해 공간 속에서 드러내 보이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간을 조직화하는 데는 군대와 같은 정확한 건설동원 절차와 매뉴얼, 혁명 전통과 승리, 건설과 같은 국가 성취의 기호화, 통치를 물질적으로 구현하는 도시계획 설계도면, 지도제작법, 수력학의 엔지니어링, 이국적인 식물학, 회계와 재정까지 제의적인 국가 디스플레이를 위해 다양한 행위자가 동원, 배열, 조립된다. 영토는 국가의 성취를 디스플레이하는 하나의 장소, 사회-기술적 물질의 구현 공간이 되는 것이다.⁸¹⁾ 결국 ANT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통찰 중 하나는 바로 국가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념과 인물, 제도와 담론, 기구와 관료로만 구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조차도 이런 물질, 과학, 기술을 통해 접합되고 응고되어 하나의 국가성(stateness)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행동만이 이루어지는 컨테이너

갈등에 주목한다. 그런 측면에서 ANT는 어떤 과정의 기저를 이루는 리즘적 구조를 드러내는 데 관심을 갖는다.

80) Patrick Carroll, *Science, Culture, and Modern State Formation*, pp. 14~15.

81)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E. Nordlinger, *The Autonomy of the Democratic Stat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참조.

박스가 아니라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기술적 연결망의 물질성으로 구성된다.

(2) 사회-기술적 연결망의 추적과 기술

ANT의 문제의식이 복한 연구에 주는 방법론적 시사점은 무엇일까. 다양한 적용과 성찰이 가능하겠지만 아마도 ANT가 제시하는 ‘사회적인 것’의 재조립이 주는 울림이 클 것이다. 거대 규정 용어나 개념에 괄호를 치고 그로부터 내려와 인간-비인간의 행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래로부터 행위자들을 관찰·추적하고,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통해 네트워크가 어떻게 연결되고 강화 또는 약화되는가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물론 ‘아래로부터’라는 표현은 미시와 거시의 위계적 구분을 하고 미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행위자의 네트워크 궤적을 추적하고 따라간다는 뜻이다. 또한 현상을 발굴한다는 것은 다양한 행위자의 네트워크를 추적한 결과, 발견하게 되는 네트워크와 번역 행위를 그 자체로 명명(naming)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거대하고 고정된 무엇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성과 국지성을 갖는다. 이렇게 국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네트워크 특성과 번역 행위에 대한 명명을 관찰 배율을 높여가며 추적해 나아감으로써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또는 연결되어 있던 사회-기술적 연결망이 어떻게 생성과 지속, 변형, 그리고 소멸하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방식들은 주로 거의 이념형에 가까운 거대 규정 용어나 개념, 모델, 보편성, 법칙성을 실재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에 개별 국지적 네트워크와 현상을 환원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두드러진 창발 현상을 보이는 시장, 도덕체계, 언어, 법질서, 공간 등은 이런 방식의 연구로는 온전히 설명하기 힘들

다. ‘사회적인 것’으로 환원하여 설명할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연계를 추적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북한 연구 역시 시장, 도덕체계, 제도 및 법질서, 언어, 공간 변화 등 창발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와 같은 ANT의 문제의식에 입각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자들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사회-기술적 과정과 결합하면서 하나의 경관화된 상식, 제도, 사물, 기구 등으로 자연화되는가에 대한 추적이 필요한 것이다. 가령 북한에서 시장은 단순히 계획경제와 분리된 ‘장터’의 소란스러움이 아닌 수많은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이 결합되고 네트워크화되는 과정이며, 그것은 여러 행위자들이 수없이 직면하는 다양한 생존의 어려움에 대해 수많은 우회(detour)와 목표 번역, 접합을 통해 구성하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번역의 운동 과정인 것이다. 이런 우회와 목표 번역의 과정은 인간뿐만 아니라 사물, 기술, 과학, 제도, 기구, 관습, 여론 등이 동원되고 결합되면서 시장의 사회-기술적 연결망 또는 장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추적하면서 그 네트워크의 양상과 결합, 번역 과정을 명명해주고 의미화해주는 것이다.

2) ANT를 통한 북한 사례연구

(1) 북한의 조직들은 어떻게 행위자를 배열하고 세상을 번역해내는가

ANT는 조직이론에서 ‘언어적 전환(linguistic turn)’에 버금가는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받는다. 조직이론에서의 공헌은 비인간 행위자라는 ‘잃어버린 무리들(missing masses)’을 행위자로 호명해냈다는 데 있다.⁸²⁾ 인간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인식되는 기관이나 조직도 사람을 포함한

기계, 문서, 통신, 건축물 등과 같은 자연과 인공물 등에 의해 유지되는 네트워크라고 보는 관점이다. ANT를 활용한 조직 연구는 조직을 이루는 질료(인간/비인간)의 문제, 조직의 전략에 개입하는 인간-비인간 행위자에 관한 질문이다. 즉 질료와 조직 전략과의 상호 작용의 결과에 주목한다. 조직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동원·배열된 다양한 이질적인 행위자는 과연 어떤 것들인가, 이들의 결합을 통해 조직은 어떻게 번역되거나 번역하는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조직과 그 조직을 이끄는 권력자에 관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다.

어떤 방식으로(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이 배열되었는가? 어떻게 이들이 다양한 경쟁 행위자들의 저항을 이겨냈는가? 사회적 관계가 조직화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이 연속성과 이동성을 어떻게 갖추게 되었는가? 이를 위해 어떠한 종류의 전략이 사용되었는가? 이러한 전략은 얼마나 멀리 전파되고 광범위하게 행사되는가? 어떻게 그러한 계산의 결과가 행위로 이어지는가? 혹은 번역되는가? 조직을 이루는 이종적인 부분과 조각이 중심과 주변이라는 비대칭적 관계를 어떻게 생성하게 되는가? 즉 어떻게 중심이 주변을 대표하게 되고 주변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었는가?⁸³⁾

ANT의 관점에서 조직은 성취물이며 과정이고 결과물이자 극복되어진 저항인 동시에 가변적 결과물이다. 위계질서, 조직 배열, 권력관계, 정보 흐름 등 조직을 이루는 각 부분은 인간-비인간의 이질적인 행위자들의 질서로 인해 생성된 불확정적 결과물이다. ANT는 바로

82) Andrea Whittle and Andre Spicer, "Is actor network theory critique?," *Organization Studies*, 29(2004), p. 611.

83) Rafael Alcadiyani, "Actor-Network Theory, organizations and critique: towards a politics of organizing," *Organization*, Vol. 17, No. 4(2010), p. 435.

이것들을 분석하고 설명하려 한다.⁸⁴⁾ 이런 시각은 북한의 다양한 국가조직 및 비공식적 조직의 형성 과정에 함축된 네트워크에 주목하게 한다. 대표적으로 동맹관계, 군대 조직, 공안기관, 당 및 행정조직, 경제조직 등이다. 이 조직들이 어떻게 다양한 행위자들의 배열과 배치, 결합을 통해 수행되는가? 이들의 수행이 어떤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해관계를 동원하고 원격조정하는가? 이런 조직화를 통해 수행하는 번역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이런 사회-기술적 연결망은 어떻게 강해지거나 약해지는가? 등을 질문으로 던질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의 국가의 행위성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ANT에 입각한 국가이론 논의는 국가이론을 모델링하는 데서 부상하고 있는 ‘행위자 모델’과 탈구조주의적 ‘네트워크 모델’, 그리고 이들 양쪽 모델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ANT를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이다.⁸⁵⁾ 주목할 부분은 국가의 행위성에 대한 질문이다. 국제 관계에서, 국내 정책결정에서 국가의 행위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이다. 지도자, 권력 엘리트, 권력기관, 자본가, 기업, 대중 등 누가 또는 어떤 연합이 국가의 행위성을 만들어내는가? ANT는 다양한 이질적 행위자들의 사회-기술적 연결망과 ‘번역’을 통해 국가의 행위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사회-물질적 연결망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 어떻게 국가의 정체성 또는 수행성이 달라지고 다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84)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 외, 『인간·사물·동맹』, 55쪽.

85) Jan-Hendrik Passoth and Nicholas J. Rowland, “Actor-Network State: Integrating Actor-Network Theory and State Theory,” *International Sociology*, Vol. 25, No. 6(2010), pp. 818~841.

지도 관심사다. 한편으로 칼롱은 ‘수행성’ 개념을 통해 국가를 이론화하는 모든 이론적 실천이 정치적 행동을 낳고 정치적 행동이 일정한 국가모형을 만든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수행성 개념은 국가가 자신에게 부과해온 수행문 — 이데올로기, 노선·정책, 상징, 정체성, 사회·기술적 장치 — 을 통해 행위성을 어떻게 제약받는가를 고민하게 한다.

한편 탈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화를 ANT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시도이다. 가령 에너지 자원의 물질적·정치적 변화를 ‘위상학(topology)’과 ANT를 통해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런 연구는 탈사회주의 국가에서 민족적 경계, 영토 변화, 자원 조정, 개혁의 궤도 속에서 나타난 물질자원·사물·기술·제도와 정치적 변화 사이의 역학관계, 권력의 흥망을 좌우하는 물질 - 에너지 흐름의 관계, 상호의존을 논한다.⁸⁶⁾

이런 연구들은 북한의 국가 성격 및 모델에 대한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령 북한의 국가모델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전체주의’ 모델이 주도해왔고 군사주의, 스탈린주의 모델 등 ‘위로부터의’ 정치체제에만 주목해왔다. 사실상 이런 모델 자체가 ‘북한적인 것’을 규정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모델들은 최고 지도자와 상층 엘리트의 규정력만을 과도하게 부각시킬 뿐, 사회를 비롯한 국가의 행위성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이질적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를 생략해왔다. 이런 방식은 결국 탈냉전과 경제난 이후의 사회적 역동성과 체제 유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ANT를 통한 국가모델의 본격적인 경험 연구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새로운 재구성의 가능성은

86) Stefan Bouzarovski, “Post-socialist energy reforms in critical perspective: Entangled boundaries, scales and trajectories of change,”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Vol. 17, No. 2(2010), pp. 167 ~ 182.

충분하다. 소재 또한 주로 지도자와 정치권력에 한정되어왔던 데에서 ANT의 관점으로 다양하게 발굴될 수 있다.

(3) 리더십은 어떻게 생산되는가

기존의 리더십 연구자들은 명령 스타일이나 카리스마적 개성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 위대한 지도자와 실패한 지도자의 존재를 말하곤 했다. 그러나 리더십의 존재와 부재에 대한 개념화는 연구자들을 괴롭히는 문제였다. 최근 ANT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조직을 대표하여 말한다는 것, 지도자 또는 추종자를 가능하게 하는 이질적인 인간과 비인간의 행위자-네트워크, 목표와 전략의 블랙박스화와 번역, 네트워크화된 사회적 행위의 과정, 그리고 퍼포먼스로서 리더십 연출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런 접근은 리더십의 존재/부재를 특정한 상황에 놓인 상황적 구조와 행위자-네트워크를 통해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리더십에 동원되는 다양한 행위소(actant)가 어떻게 의미로 가득 채워지는지 또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지, ANT를 통해 어떻게 리더십의 존재/부재와 관련한 네트워크의 매듭을 풀고 권력 흐름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지 보여준다.⁸⁷⁾ 가령 두 명의 미국 통치자의 리더십을 재난 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분석하기도 한다. 가령 캘리포니아 산불과 카트리나 허리케인에 대한 미국 지도자들의 대응을 분석하는 것이다. ‘위험’ 또는 ‘위기’에 대응하여 지도자들이 동원하는 행위자-네트워크에 주목한다.⁸⁸⁾

87) Gail T. Fairhurst and Francois Cooren, "Leadership as the Hybrid Production of Presence(s)," *Leadership*, Vol. 5, No. 4(2009), pp. 469~490.

88) Grant, Kien "An Actor Network Theory Translation of the Bush Legacy and the Obama Collectif," *Cultural Studies*, Vol. 9, No. 6(2009), pp. 796~802.

이들 ANT를 활용한 리더십 연구는 북한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구성하는 인간-비인간 행위자-네트워크, 북한의 리더십 담론을 구성하는 행위자-네트워크, 분단 상황이 남북한의 리더십 담론과 상식을 어떻게 창출하고 있는가, 리더십 담론을 창출하는 행위자-네트워크를 둘러싼 권력의 흐름, 분단 및 안보 관련 사태에서 나타난 리더십 속의 행위자-네트워크 등에 대한 연구가 주목할 만한 주제들이다. 특히 핵무기와 리더십의 관계를 핵무기라는 비인간과 사회-기술적 체계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4) 분단 사회에서 권력과 젠더는 어떻게 수행되는가

여성 연구에서는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이 ANT를 통해 재구성되어 논의된다. 일찍이 버틀러(Judith Butler)는 젠더를 자연적 속성이 아니라 젠더 규범의 반복적 수행으로 형성되는 구성물로 본 바 있다.⁸⁹⁾ 이에 칼롱은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이 물질성을 결여하고 폐쇄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⁹⁰⁾ 그에 따르면 젠더의 구성에서 사회적인 것(담론)의 집착은 자연적인 것이 수행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젠더의 사회적 구성은 사물과 자연을 포함한 ‘사회-기술적 구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수행성을 언어적인 것에서 사회-기술적 구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인식할 것을 제안한다.⁹¹⁾

89)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55쪽.

90) Michel Callon, “What does it mean to say that economics is performative?” in D. Mackenzie, F. Muniesa and L. Siu(eds.), *Do Economists Make Markets? On the Perform activity of Economics*(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pp. 328~330.

91) 이와 관련한 심층적 논의로는, 주디 와이즈먼(Judy Wajcman), 『테크노페미니즘』 참조.

이런 ANT를 활용한 여성 연구는 분단사회에 대한 연구에도 시사점을 준다.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수행성 개념을 통해 분단의 수행성이 어떻게 언어적·물질적 차원에서 구현되는지에 대한 물음이 가능하다. 분단질서 내의 젠더질서, 젠더 레짐 등을 ANT를 활용하여 추적하는 것이다. 또한 분단 상황과 군사주의 문화 속에서 남북간에 형성된 성별 가치관, 분업 원리, 여성 배제의 권력 장치 등이 어떤 인간-비인간 행위자-네트워크의 효과 속에서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5) 권력의 공간 생산과 안정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NT는 어떻게 공간적 관계가 복잡한 네트워크로 둘러싸이게 되는가에 대한 사고에서 유용한 방법을 제공한다. 지리학에서 ANT는 최근 들어 가장 각광받는 이론적 자원으로 등장했다. ANT에서 행위자-네트워크는 절대적 공간의 개념이 아닌 관계적 공간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한다.⁹²⁾ 관계적 공간은 곧 ‘위상학(topology)’적 사고를 요구한다. 어떻게 멀리 떨어진 장소와 상이한 시간에 있는 다른 행위자들이 전략적 중심지에 의해 영향을 받고 배치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ANT에서 지리와 공간성의 문제는 행위자-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의 권력관계에서 공간적 규모를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으며, 국지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을 모두 고려하고 다양한 규모를 고려하는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한편 ANT를 활용하여 공적 공간을 둘러싼 권력관계, 그 속에 있는 물질성과 물질적 디자인의 역할을 검토하기도 한다. 일상생활의 도시

92) 구양미, “경제지리학 네트워크 연구의 이론적 고찰: SNA와 ANT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통권 제30호(2008).

환경에서 권력 공간의 생산과 안정화를 개념화하고 권력 공간의 생산이 개인 또는 제도보다는 행위소(actant)의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것은 권력 공간의 생산과 안정화에 동원되는 인간-비인간 네트워크를 추적한다.⁹³⁾ 이런 접근은 북한의 공간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도시 연구가 주목할 만한 연구 주제라고 본다. 도시가 어떻게 역사적 레이어의 퇴적 속에 있고 그 퇴적된 인공물이 어떻게 네트워크로 하나의 도시성을 발현해내는가이다. 북한의 도시 시장에 대한 연구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또한 분단의 영토성을 생산하는 물질성, 분단의 영토를 물질적으로 설계하는 권력관계, 일상생활을 통해 분단 영토가 생산되고 안정화되는 방식 등에 주목하게 한다.

기억 연구(memory studies)에서는 “왜 건물은 시간과 기억과 관련된 사물로서 논쟁이 되는가, 그들을 고유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ANT를 통해 어떻게 사물이 일반적으로 시간과 관련되어 있고 사물이 기억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한다.⁹⁴⁾ 이런 관점은 건축물을 ‘불변의 가동물(immutable mobile)’로 보고, 이들이 시간과 갖는 관계에 천착한다. 국가와 지도자를 상징·은유하는 건축물, 일상화된 건축물 속에 आरो새겨진 행위자-네트워크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93) Mattias Karrholm, “The Materiality of Territorial Production: A Conceptual Discussion of Territoriality, Materiality, and the Everyday Life of Public Space,” *Space and Culture*, Vol. 10, No. 4(November, 2007), pp. 437~453.

94) Michael Guggenheim, “Building memory: Architecture, networks and users,” *Memory Studies*, Vol. 2, No. 1(2009), pp. 39~53.

5. 맺는 말

ANT는 그 문제의식이 지니는 성찰성만으로도 사회과학 일반뿐만 아니라 북한 연구에서도 여러모로 방법론적으로 함의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연구사적 측면에서 북한 연구가 지녀왔던 인식과 방법에 대한 성찰의 측면이다. 사실 분단체제의 속성 때문에 북한에 대한 애증에 찬 열망은 북한 인식의 다양성을 제약해왔다. 최고 지도자, 이데올로기, 권력투쟁 등 몇 가지 익숙한 연구 표상과 주제에 안주하거나, 인상주의적 해석과 정책적 평가에 치우친 연구가 주류를 이루거나, 북한 사회를 여타 사회과학에서 주제로 삼는 대상만큼 일반적 연구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교정 대상이나 예외적 정책 대상으로 보는 태도 등이 다양한 이론적 시도와 분석 기법의 적용을 가로막는 방법론적 편견으로 작용하기도 했다.⁹⁵⁾ 그런 측면에서 ANT를 잘 활용한다면 북한 연구가 행해왔던 연구 주제 설정과 인식 및 방법론 구사에 대한 성찰과 메타비평의 계기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분단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북한 연구자의 존재론적 상황에 대한 환기와 성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분단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북한 연구자의 시선은 북한이라는 연구 대상으로부터 객관화된 시선이 아니라, 그 존재와 시선 자체가 이미 분단의 구성 요소임을 성찰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분단 사회의 인식체계와 세계관, 분단의 사회적 진실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탐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ANT는 그런 분단사회의 인식과 북한 연구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데 유용한

95) 박순성·고유환·홍민, “북한 일상생활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서울: 한울, 2010), 162쪽.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식 이상으로 ANT가 방법적 도구로서 북한 연구에 직접적으로 뚜렷하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장에 많지 않아 보일 수 있다. 우선 ANT가 방법적 측면에서 인류학적 조사, 민속방법론적 접근과 현지 관찰을 통한 행위자 추적과 기술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다. 북한 연구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제와 소재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ANT는 북한만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적용이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보다는 국가 연구, 남북관계, 군사외교문제, 분단 현상에 대한 고찰 등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ANT가 사회과학 전반에 던지는 문제의식은 여러모로 지금까지의 북한 연구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본다.

■ 접수: 3월 6일 / 수정: 3월 22일 / 채택: 3월 25일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단행본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 그레마스의 기호학 및 일반 의미론의 연구』(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김환석, 『과학사회학의 쟁점들』(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6).

데란다, 마누엘(Manuel De Landa), 『강도의 과학과 잠재성의 철학: 잠재성에서 현실성으로』, 이정우·김영범 옮김(서울: 그린비, 2009).

뒤르켐, 에밀(Emile Durkeim), 『사회학적 방법의 규칙들』, 윤병철 옮김(서울: 새물결, 2001).

들뢰즈, 질(Gilles Deleuze), 『차이와 반복』, 김상환 옮김(서울: 민음사, 2004).

들뢰즈·가타리(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천개의 고원』, 김재인 옮김(서울: 새물결, 2001).

라투르, 브루노(Bruno Latour) 외,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홍성욱 엮음(서울: 이음, 2010).

라투르, 브루노(Bruno Latour),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홍철기 옮김(서울: 갈무리, 2009).

바우만, 지그문트(Zygmunt Bauman), 『유동하는 공포』, 함규진 옮김(서울: 산책자, 2009).

버틀러, 주디스(Judith Butler),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조현준 옮김(서울: 문학동네, 2008).

벡, 울리히(Ulrich Beck),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홍성태 옮김(서울: 새물결, 2006).

세르, 미셸(Michel Serres), 『천사들의 전설: 현대의 신화』, 이규현 옮김(서울: 그린비, 2008).

_____, 『헤르메스』, 이규현 옮김(서울: 민음사, 2009).

세르·라투르(Michel Serres and Bruno Latour), 『해명』, 박동찬 옮김(서울: 숲, 1994).

- 스콧, 제임스 C.(James C. Scott),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전상인 옮김(서울: 에코리브르, 2010).
- 살리, 사라(Sara Salih),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김정경 옮김(서울: 엘피, 2007).
- 아감벤, 조르조(Giorgio Agamben), 『장치란 무엇인가? 장치학을 위한 시론』, 양찰렬 옮김(서울: 난장, 2010).
- 와이즈먼, 주디(Judy Wajcman), 『테크노페미니즘: 여성, 과학 기술과 새롭게 만나다』, 박진희·이현숙 옮김(서울: 궁리, 2009).
- 이정우, 『사건의 철학: 삶, 죽음, 운명』(서울: 그린비, 2011).
-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 타르드, 가브리엘(Jean Gabriel Tarde), 『모방의 법칙』, 이상률 옮김(서울: 문예출판사, 2012).
- 푸코, 미셸(Michel Foucault),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 홍성민 옮김(서울: 나남, 1991).
- 화이트헤드, 알프레드 노스(Alfred Whitehead), 『과정과 실재: 유기체적 세계관의 구상』, 오영환 옮김(서울: 민음사, 2003).
- 휴즈, 토머스(Thomas P. Hughes), 『테크놀로지, 창조와 욕망의 역사』, 김정미 옮김(서울: 플래닛미디어, 2008).

2) 논문

- 구양미, “경제지리학 네트워크 연구의 이론적 고찰: SNA와 ANT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통권 제30호(2008).
- 김환석, “두 문화, 과학기술학, 그리고 관계적 존재론,” 『문화과학』, 제57호(2009년 봄호).
- 다너 해러웨이(Donna Haraway), “사이보그를 위한 선언문: 1980년대에 있어서 과학, 테크놀로지, 그리고 사회주의 페미니즘,” 임옥희 옮김, 『문화과학』, 통권 제8호(1995).
- 문창욱, “변화의 철학, 화이트헤드를 위한 변명,” 『현대철학의 모험』(서울: 도서출판 길, 2007).
- 박순성·고유환·홍민, “북한 일상생활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북한의 일상생

- 활세계: 외침과 속삭임』(서울: 한울, 2010).
- 송성수, “에디슨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술시스템론,” 『육망하는 테크놀로지』(서울: 동아시아, 2009).
- 이지훈, “미셸 세르의 인식론: 공존의 모색,” 『현대철학의 모험』(서울: 도서출판 길, 2007).
- 들뢰즈, 질(Gilles Deleuze), “장치란 무엇인가?,”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박정태 옮김(서울: 이학사, 2007).
- 최원규, “북한 국가성격의 이론과 쟁점: 비교사회주의적 관점,”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예외국가’의 공고화』(서울: 한울, 2001).
- 홍 민, “분단과 예외상태의 국가: 분단의 행위자 - 네트워크와 국가폭력,” 『북한학연구』, 제8권 제1호(2012).

2. 국외 자료

1) 단행본

- Austin, John L., *How to do Things with Words*(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 Callon, Michel, Millo, Yuval and Muniesa, Fabiban(eds.), *Market Devices*(Oxford: Blackwell, 2007).
- Carroll, Patrick, *Colonial Discipline*(Dublin: Four Courts Press, 2000).
- _____, *Science, Culture, and Modern State Formation*(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 Harman, Graham, *Prince of Networks: Bruno Latour and Metaphysics*(Melbourne: Re. Press, 2009).
- Hughes, Thomas P., *American Genesis: A Century of Invention and Technological Enthusiasm, 1870~1970*(New York: Viking Penguin, 1989; rev.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 Latour, Bruno, *Pandora's Hope*(Harvard Univ. Press, 1999).
- _____, *Politics of Nature: How to Bring the Sciences into Democracy*(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_____,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 Theory*(Oxford University Press, 2005).

_____, *Science in Action: How to follow scientists and engineers through society*(Cambridge·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Mol, Annemarie, *The Body Multiple: Ontology in Medical Practice*(Duke Univ. Press, 2003).

Nordlinger, E., *The Autonomy of the Democratic State*(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2) 논문

Alcadipani, Rafael, “Actor-Network Theory, organizations and critique: towards a politics of organizing,” *Organization*, Vol. 17, No. 4(2010).

Allen, John and Cochrane, Allen, “Assemblages of State Power: Topological Shifts in the Organization of Government and Politics,” *Antipode*, Vol. 42, No. 5(2010).

Bouzarovski, Stefan, “Post-socialist energy reforms in critical perspective: Entangled boundaries, scales and trajectories of change,”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Vol. 17 No. 2(2010).

Callon, Michel and Latour, Bruno, “Unscrewing the big Leviathan: How actors macro-structure reality and how sociologists help them do so,” in K. Knorr Cerina and A. V. Cicourel(eds.), *Advances in Social Theory and Methodology*(Boston, MA: Routledge, 1981).

Callon, Michel, “Four models of the dynamics of science,” in S. Jasanoff, G. E. Markle, J. C. Peterson and R. J. Pinch(eds.), *Handbook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Thousand Oaks, CA: Sage, 1995).

_____, “Some Elements of a Sociology of Translation: Domestication of the Scallops and the Fisherman of St. Brieu’s Bay,” John Law(ed.), *Power, Action and Belief: A New Sociology of Knowledge? Sociological Review Monograph* 32(London: Routledge, 1986).

_____, “What does it mean to say that economics is performative?” in D.

- Mackenzie, F. Muniesa and L. Siu(eds.), *Do Economists Make Markets? On the Perform activity of Economics*(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 Derrida, Jacques, "Signature Event Context," trans. A. Bass in Peggy Kamuf(ed.), *A Derrida Reader: Between the Blinds*(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
- E. Nordlinger, *The Autonomy of the Democratic Stat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 Fairhurst, Gail T. and Cooren, Francois, "Leadership as the Hybrid Production of Presence(s)," *Leadership*, Vol. 5, No. 4(2009).
- Guggenheim, Michael, "Building memory: Architecture, networks and users," *Memory Studies*, Vol. 2, No. 1(2009).
- Haraway, Donna, "Situated Knowledge: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and the Privilege of Partial Perspective," *Feminist Studies*(1988).
- Jessop, Bob, "Bringing the state back in(yet again): Reviews, revisions, rejections, and Redirections,"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11(2001).
- Kaghan, William N. and Bowker, Geoffrey C., "Out of machine age?: Complexity, sociotechnical system and actor network theory," *Journal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Management* 18(2001).
- Karrholm, Mattias, "The Materiality of Territorial Production: A Conceptual Discussion of Territoriality, Materiality, and the Everyday Life of Public Space," *Space and Culture*, Vol. 10, No. 4(November, 2007).
- Kien, Grant, "An Actor Network Theory Translation of the Bush Legacy and the Obama Collectif," *Cultural Studies*, Vol. 9, No. 6(2009).
- Latour, Bruno, "A Note on Socio-Techincal Graphs," *Social Studies of Science*, Vol. 22(1992).
- _____, "Gabriel Tarde and the End of the Social," Patrick Joyce(ed.), *The Social in Question: New Bearings in History and the Social Science*(London, 2002).
- _____, "Pragmatogonies: A Mythical Account of How Humans and Nonhumans Swap Properti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37(1994).
- Law, John, "Actor Network Theory and Material Semiotics," version of 25th April

- 2007, <http://www.heterogeneities.net/publications/Law2007ANTandMaterialSemiotics.pdf>.
- _____, "Power, discretion and strategy," *A Sociology of Monsters: Essays on Power, Technology and Domination*(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1).
- Mayer, J. W., "The changing cultural content of the nation-state: A world society perspective," in G. Steinmetz(ed.) *State/Culture: State Formation after the Culture turn*(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 Muniesa, Fabian, Millo, Yuval and Callon, Michel, "An introduction to market devices," Michel Callon, Yuval Millo and Fabian Muniesa(eds.), *Market Devices*(Oxford: Blackwell, 2007).
- "Ontological politics," *Actor Network Theory and after*(Oxford: Blackwell Publishing, 1999).
- Passoth, Jan-Hendrik and Rowland, Nicholas J., "Actor-Network State: Intergrating Actor-Network Theory and State Theory," *International Sociology*, Vol. 25, No. 6(2010).
- Whittle, Andrea and Spicer, Andre, "Is actor network theory critique?," *Organization Studies*, 29(2004).

Actor-Network Theory and North Korean Studies: Methodological Reflection and Possibility

Hong, Min(Dongguk University)

Actor-Network Theory(ANT) is recently the most compelling academic theory in the areas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STS), social science, humanities, geography, ecology and social medicine since it first appeared in the early 1980s. This paper is intended to seek epistemological reflection and methodological possibility which Actor-Network Theory provides to social science and North Korean studi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introduces main assertions and core concepts suggested by ANT in the first place and contemplates its meaning in social scientific cognition and methodology. Secondly, this paper mulls over a methodological implication given to North Korean studies by ANT through critically review of existing North Korean studies. Thirdly, this paper looks for research themes of North Korean studies to which ANT can be applied and methods which can contribute to future research. In conclusion, I think that the application of ANT to North Korean

studies can serve as a theoretical alternative to overcome methodological narrowness shown by North Korean studies so far and will give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epistemological limitations caused by inertia of division system and cold war.

Keywords: actor-network theory, North Korean studies, the social, black box, collective, power, socio-technical network, agencement, assemblage, dispositif, agency